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복음전파의 명령을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6월 23일 (토) 제 168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월드컵 보러 교회로 오세요!

## CT, 러시아 복음주의적 교회들, 반정책 회피 자국민 대상 선교전략 소개

단일 스포츠 경기로는 지구촌 최대 축제인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다. 개막전부터 개최국 러시아가 사우디를 5:0으로 이기고, 한국이 배정된 F조에서는 멕시코가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지난 대회 우승국인 독일을 1대0으로 잡는 등 이변이 속출하면서, 전 세계가 흥분으로 빠져들고 있다.

축구공은 등글기에 어느 팀이나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듯이, 크리스천들은 또 다시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대적인 선교 사역들을 준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푸틴 정부가 이미 발동한 강력한 선교사 사역/활동 금지 정책이, 골기퍼처럼 철동같이 단단하게 러시아 문전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복음 전파 금지라는 빛장 수비에 맞설 새로운 전략을 펼쳐서 교회/선교단체들의 사역을 보도한다(World Cup Evangelism Evades Russia's Ban: Banned from sharing the gospel at games, Protestants adopt a new missionary strategy).

4년 전, 월드컵이 개최됐던 브라질에서는 선교를 위한 대대적인 야외 집회들과 공연들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인정한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밖에서는 어떠한 것도 허용이 안된다고, 이미 2016년에 강력한 반선교 활동 정책을 내놓았다(Yarovaya law). 따라서 러시아 전역에서 개최되는 조별 리그 경기나 토너먼트 경기 개최 도시들에서도 어떤 일체의 야외 선교 활동들은 불허된다. 심지어 복음이 담겨진 전단지들을 돌리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정교회는 밀월 관계로 불리울 만큼 손발이 잘 맞았다. 따라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나 선교 그룹들을 위한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고, 방문/여행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반선교 정책에 어긋나는 활동들을 하면 당장에 추방시키겠다는 위협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선교활동은 오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들, 그것도 러시아 본국인들이 세운 교회 안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종교적으로 소수인 개신교회들이 하나가 돼, 한 달 넘게 치러지는 월드컵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러시아를 찾은 방문객들이나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월드컵 예선 경기들이 치러지는 모스크바, 성 피터스버그 등등 도시들에는 400개 이상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있다. 특히 러시아인들이 반드시 보려고 하는 경기들(러시아팀 경기) 입장권이 이미 매진됐기에, 축구라면 사족을 못 쓰는 러시아인들을 위해 경기 당일 교회 안에서 대형 스크린과 팝콘, 해바라기씨, 물론 하나님의 말씀까지



준비해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단체 (Mission Eurasia, WWW.MISSIONEURASIA.ORG)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까지 파송해 러시아 국가대표팀이 경기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인 신약성경(60만권 배포 예정)과 함께 제자 훈련 교재가 담겨진 전단지들을 나누어주고, 성경공부를 할 희망자들을 찾고, 유스 캠프에 갈 청소년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적 접근 방법은 이미 미국에

서 수퍼볼 경기가 있는 날, 교회들이 파티를 열고 주변 불신자들에게 다가서는 거의 "표준적 아웃리치"에 가깝다. 그러나 러시아 전체 인구 중 1%에 불과한 러시아인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선교 전략이다. 개최된 지 얼마 안되는 베이비 교회들은 이러한 방법을 대거 환영하면서, 커뮤니티에 다가설 전략이라고 전격적으로 수용하지만, 이미 안중세에 들어선 기존 교회들에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미션 유라시아" 회장 서

지 라크바는 말한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축구 경기 보는 장소로 허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나이 든 목회자들의 반대를 전하며, 이 전략을 교회가 수용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라크바 회장은 말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이 전략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설득해 시행되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 잘 들어주는 것만도 치유 가능!

## 리더십저널, 애덤 S. 맥휴 목사가 전하는 경청능력 업그레이드 노하우 소개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베너(David G. Benner)의 말처럼, 경청 능력의 성장을 막는 주된 걸림돌은 우리 대부분이 이미 스스로 잘 듣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된다. 심리치료사들에 따르면, 많은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함은 말만 많아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이룰 수도 없고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경하는 친밀함은 일반적 대화를 통해서 또는 경쟁처럼 느껴지는 교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없다. 우리의 정체를 발견하려면 다른 목소리들과 별개로 내 목소리만 찾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목소리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

워싱턴포스트와 심리학투데이에 오랫동안 경청에 대해 기고했던 애덤 S. 맥휴(Adam S. McHugh)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경청은 우리의 영성, 관계, 그리스도의 몸 된 사명, 문화나 세상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며, 무슨 일에 임할 때든 먼저 듣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고 말하며, 경청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잘 듣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우리는 경청의 올바른 기법인 능동적 경청, 풀어서 말하기, 거울처럼 반영해 주기 등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경청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병기장에 가득한 기술이 아니다. 듣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경청을 자연스럽게 직관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 누군가 잘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잘

들어주는 부모를 타고날 만큼 누구나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보니 많은 이들이 경청이 결핍된 상태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을 찾아 본받아야 한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으로

경청은 상대를 고유의 자신으로 놓아두는 신성한 선물이다.

(4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spelmail@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면		14면
서론 민경엽 목사		인/터뷰 원영호 목사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선교전문단체, '2018 단기선교 시즌 맞아 파송교회/단기선교 참가자 위해 제언

이미 시작된 여름방학과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선교지로 떠났거나 준비하고 있는 단기선교 팀들이 있다. 선교전문 단체들은 이번 단기선교여행이 현장 탐사인지, 현지 선교사를 돕기 위한 것인지 등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지 교회와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다. 또 적은 인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기상황 대처훈련을 하는 것도 단기선교여행을 떠나기 전 필요한 준비다.

알아두어야 할 것

단기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 교회는 단기선교사들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와 단기선교 참가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1. 단기선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단기선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단기선교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미 위에서



대한 시간과 재정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다시 한번 단기선교의 동기(motivation)를 점검해 봐야한다. 만약 자신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만하지 않으면 다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1.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

단기선교는 준비와 사역의 전 과정이 배우의 기회다. 실제적으로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 지망생들과 후보자들은 다른 문화

## 단기선교에 대한 확신 갖고 훈련하고 구체적 준비 배움의 기회, 헌신의 기회, 영적성장의 기회로 삼아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선교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단기선교는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할지라도 단기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단기선교의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교인들을 갱신시키고 세계를 갱신시키는 불을 붙일 수 있다. 단기선교 팀은 자기들의 사역 경험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갖거나 확인할 수 있다.

2. 사역자 선발 및 훈련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훈련해 사역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선교지도자들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택을 바로 하지 않으면 훈련이 무의미할 수 있다.

교회는 단기 사역을 위해 아무나 선교지로 보내서는 안 된다. 헌신되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내보내야 할 것이다. 선교 훈련은 선교에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선교훈련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구체적인 준비

단기선교 팀은 가능한 한 자기들이 찾아가는 사역 대상 민족, 언어 그리고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대상 민족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영적 전투임을 알고 스스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단기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4.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과의 협력

성공적인 단기선교는 사역 대상국에 있는 선교사들 및 현지 지도자들과의 협력이 열쇠다. 선교지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들이 가져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 단기선교 팀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시간표를 잘 짜야한다.

갑작스런 방문으로 현지에서 사역하는 정규선교사들의 정규사역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차세대 지도자를 개발

지역교회는 선교목사를 두고 선교사역을 조직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특히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에는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이중문화를 가진 차세대 젊은이들이 있고 이들의 향후 단기선교의 핵심이 된다. 한인 1.5세대와 2세대들은 세계선교를 위한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자원을 투자해 그들이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통해 훌륭한 일꾼들로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단기선교의 동기 점검

한편 교인들이 단기선교에 참가하면서 해외의 이국적인 환경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영적 자기만족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막

를 점착하고 선교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을 이해하고 선교의 폭넓은 관점을 갖기 위해 할 수 있으면 여러 나라에 가서 사역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선교지의 문화뿐 아니라 모문화와 선교현장의 문화의 차이(in-between place)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제3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2. 헌신의 기회로 삼으라

90년대 파송된 장기선교사의 90% 정도는 단기선교의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확인하고 장기선교사로 헌신했다.

(4면으로 계속)



## 시론

### 철이 들지 않은 교회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달에 북한에 억류된 지 371일 만에 풀려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김학송 선교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창문, 달력, 시계, 화장실 같은 것들이 없는 데서 견뎠다고 한다. 대소변을 요강으로 해결하였고, 샤워는 한 달에 한 번 해야 했는데 그것도 전기 사정이 나빠서 한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다고 한다. 그의 간증을 접하고는 집에 창문이 달려 있고, 달력과 시계가 붙어 있는 것,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따뜻한 물로 원하는 때에 맘대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여겨졌다. 살아 있는 것,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요즘 같은 한류 시대에 한국인으로 사는 것,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미국에 사는 것,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달아졌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가 하면 영생을 얻는다. 또한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린다. 소위 특권층이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면책특권(Immunity)을 갖는 것이다. 면책특권이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특권 말이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와 다가오는 미래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정죄가 전공인 마귀도 어쩔 수가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롬8:33).

타락한 인간인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어차피 용서될 것이란..."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존스 목사의 말을 들어보라. "어떤 설교자가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하든 상관없으며, 죄를 계속 지어도 은혜를 더하게 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다. 우리의 설교와 복음 증거를 통해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나와야 바르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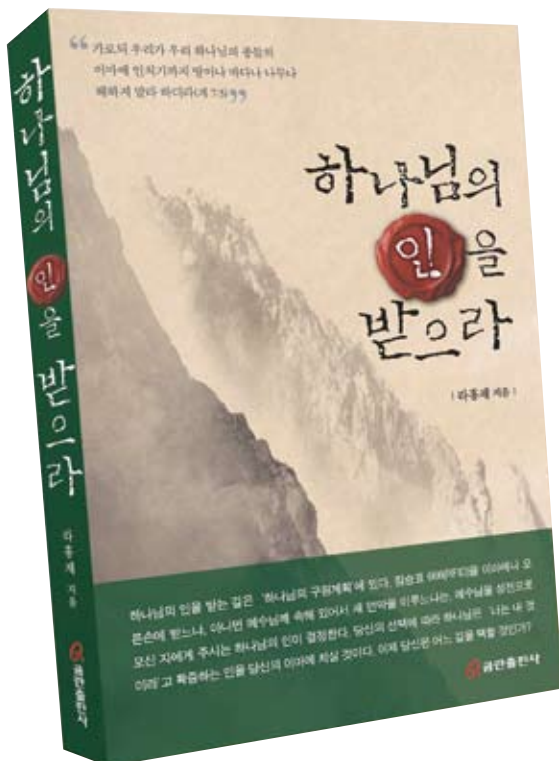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죽으셨으므로 굳건하게 이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특권은 책임(사명)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5:13).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지에서 갑자기 재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재물 중에는 빌 게이츠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엄청난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깨어 있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물의 특권을 감질하는 데 사용하는 못난 사람들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다운 책임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인간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앞에 놓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에게 억지모가 아닌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배려다. 구원이라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배은망덕하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 아니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선택할지를 구원받은 인간들에게 맡기셨다. 철이 들지 않은 자녀는 제멋대로 살지만 철이 든 자녀는 부모의 뜻을 살피고 순종한다. 또한 그 뜻 이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한다. 누가복음의 탕자는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도 싫어했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멀리 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철이 든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시간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문제점은 철이 들지 않아서 구원받은 특권은 누리기를 원하는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망각한 데 있지 않을까? 존 칼빈은 "우리는 선행 없는 믿음이나 선행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칭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틴 루터는 "살아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동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의 교회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 지난 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망하듯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할 때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증거하라! 가서 전하라”

##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제37차 정기총회

총회장 최영이 목사, 제1부총회장 이성권 목사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37차 정기총회에서 신규 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제 37차 정기총회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달라스 소재 세미한교회에서 목회자와 가족 등 9백여 명이 등록한 가운데 개최됐다.

“증거하라! 가서 전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의 주 강사는 3명으로, 정승룡 목사는 교회제정의 약 50%를 선교와 구제로 사용해 한국의 10대 모범교회로 선정된 대전 늘사랑교회 담임목사로 “예수를 알아야 인생이 보인다” 저자다.

또 “래디컬”의 저자 데이빗 플랫폼 IMB 총재와 전 SBC 총회장이며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패터슨 총장도 초대됐다.

11일 오후 7시 열린 개회예배는 최영이 목사(제1부총회장) 인도로, 환영 및 인사 오인근 목사(준비위원장), 대표기도 장영득 목사, 성경봉독 이용주 목사, 특송 텍사스 북부지방교회 목사(부부, 설교) 반기열 목사(직전 총회장), 축사 안희목 목사(기침 총회장)와 하롤드 로프틴(가이드스톤 부총재), 광고 강승수 목사(총무), 축도 김승호 목사(증경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저녁 부흥회는 총회장 이호영 목사 인도로 세미한교회 성가대 특송후 이진수 목사의 통역으로 데이빗 플랫폼 IMB 총재가 “The Church on 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다.

12일 새벽부흥회에서는 안희목 목사(기침 총회장)가 “성공한 목사, 성공된 목회”라는 제목으로, 오전 집회에서는 정승룡 목사가 마가복음 1:14-15를 본문으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선택강좌들이 진행됐는데 총회산하 8개 사역부서에서 사역에 필요한 유익한 강의를 진행했다.

국내선교부는 “눈물 속에 피어나는 작은 교회 이야기”(정용교 목사), 해외선교부는 “원더풀 스토리-단기선교 강습회”(이상훈 선교사), 교육부는 “살아있는 목동이야기-목회의 동역자 평신도”(황은영 안수집사외 3인), 목회부는 “쉽게 이해하는 율법과 은혜”(전형진 목사), 영어목회부는 “2세 목회자들이 바라는 멘토링”(피터전 전도사), 여성교회분과위원회는 “내게 짜증나는

그대”(심연희 사모), 형제 분과위원회는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평신도 세미나”(김순일 목사), 목회코칭 분과위원회는 “목회코칭 이렇게 하라”(김경도 목사) 등을 준비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선교축제가 진행됐다. 2011년을 기준으로 남침례교 1만여 명의 국내외 선교사들이 153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단일교단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번 총회를 통해 민수홍 선교사 부부와 심태국 선교사 부부를 파송했다.

민수홍 선교사는 2004년부터 가주에서 목회를 하다 2년 전 다시 콜링을 받고 라오스로 파송됐다. 심태국 선교사는 이름대로 태국 선교사로 사역하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번에 다시 태국침례신학교에 파송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7차 총회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 중 총회장 후보 최영이 목사(도버한인침례교회)와 제1부총회장 후보 이성권 목사(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를 공천했으며 새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영이 목사 △제1부총회장 이성권 목사 △제2부총회장 장영득 목사 △서기 문동성 목사 △회계 김경도 목사 △감사 전단열 목사 △국내선교 정용교 목사 △해외선교 장요셉 목사 △목회부장 두지철 목사 △영어목회부장 박래이 목사 △신학분과위원장 최상광 목사 △여성선교분과위원장 최미희 사모 △형제분과위원장 윤병남 목사

총회장으로 선출된 최영이 목사는 “주도적인 리더보다 함께하는 리더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방회와 함께 협동하는 총회, 화합하는 총회, 미래가 있는 총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 총회장은 총회 비전사역을 다음 3가지로 소개했다.

△목회자 연구 프로젝트와 목회 멘토링으로 목회자 가정 복지를 위해 연구프로젝트를 돕고, 목회를 위한 멘토링 및 코칭 팀을 구성 △총회조직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총회부서 사역의 새 패러다임을 위해 실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임원과 협력할 것이며, 미남침례회의 IMB, NAMBA와 한국침례교단과도 협력 △총회 재정 확보 및 웹사이트 보강 방안을 위해 법인을 수립하고,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모금운동과 지역교회의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정리: 유원정 기자)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 목회와 부흥회(1)

목회가 목회다운 목회가 되려면 다양한 접근과 도전을 필요로 한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흥회다. 부흥회의 목적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영성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침체된 영성과 흔들리는 삶을 다잡고 신앙과 삶을 고쳐 세우는 것이다.

### 부흥의 견인, 부흥회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율법을 멀리 하고 잠신숭배와 세속주의로 기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셨다. 이른바 부흥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미스바 부흥회, 수문 앞 광장 부흥회 등 굵직한 부흥운동이 필요할 때마다 일어났다.

신약의 경우 부흥운동의 견인세력은 사도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베드로의 경우 3천명을 변화시키는 부흥운동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고, 빌립 집사도 큰 몫을 담당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역시 교회가 세속화에 짓눌려 신앙이 위기를 겪게 될 때 특별한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되살아나게 했다. 윌리엄스 무디의 부흥운동을 꼽을 수 있다.

한국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선교 초기는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진 이후에는 한국사람들이 부흥과 갱신을 견인했다. 장대현교회 성령강림 사건과 회개운동, 그 뒤를 이어 계속된 부흥운동과 뜨거운 불길은 현대교회에까지 줄을 잇고 있다. 그런 면에서 목회와 부흥회, 교회와 부흥회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부흥회가 연중행사나 이벤트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사경회, 심령대부흥회, 부흥회, 부흥사경회 등 시대 변천을 따라 이름을 바꾼 부흥회가 단순 행사로 시작되고 끝난다면 너무나 아쉽다.

### 부흥회 체크리스트

부흥회는 필요한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흥회의 목적과 목표설정만 뚜렷하면 부흥회는 실보다 득이 크고 필요하다. 그러나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다는 식의 연중행사라면 교인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예산만 들어간다.

연간 몇 차례가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선 적정선도 규정도 있는 게 아니다. 필자의 경우는 봄철엔 부흥회로 교인들의 영적 각성과 성령의 역사 체험을 위해, 가을철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적 삶을 결단하는 사경회로 나누어 실시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연중 1회로 진행하기도 했다.

달마다 부흥회를 개최하는 교회도 있다. 그런 교회의 경우 교인들은 부흥회 면역증에 걸려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회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면역성이 강해져 반비례로 약효가 약해진다.

어떤 강사야 하는가? 필자의 경우 전문 부흥사보다는 목회자를 선호했다. 물론 강사 선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담임목사의 신앙 방향, 목회철학, 교회관고 신앙 등 코드가 맞아야 하고 건강한 평가를 받는 강사야 하기 때문에 강사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다수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선정했고 교역자들과 협의해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추천으로 강사를 정한 일은 없었다.

미주 지역 모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누구라든 알 만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강사는 담임목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세임을 내세운 모 장로가 교섭했고 초빙했다. 담임목사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설교 방향과 내용이었다. 자기 성공담 늘어놓기, 인기 자랑하기, 담임목사 깎아내리기 등 건디기 어려웠다. “뭘 이따위 목회를 하느냐? 교회 성장은 담임목사 책임이다”라는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가 하면, 교인들 앞에서 담임목사에게 “앉아라 서라, 손들어라 내려라” 하며 마치 유치원생 다루듯 하는가 하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여 집사들과 드라이브를 즐기고, 팬클럽 싶은 사람들 전화번호 챙기기 등 담임목사로서는 실로 건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한다. 1천 명 중 한 명꼴로 있을 수 있는 사례이겠지만 그만큼 강사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 주는 이야기다. 그 부흥회 이후 담임목사의 목회 입지가 어려워졌고 좁아졌다고 한다.

iamcspark@hanmail.net

(1면에서 계속) '미션유라시아'는 또한, 월드컵 사역을 앞두고 젊은 리더들을 훈련시켜왔다. 여기에는 오순절, 복음주의적 루터란, 복음주의적 자유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들에서 온 젊은 리더들이 참여했고, 월드컵 기간 내내 러시아 정부의 반선교 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사역을 조정/지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개신교회 중 25% 정도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 건물 이 아닌 가정이나 개인 건물 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격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를 위한 특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 반선교 정책은

러시아정교회 신자가 아닌 러시아인의 복음 전파를 “선교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러시아정교회 신자만이 신앙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드디어 개신교회 리더들이 러시아 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했다. 즉 오순절 교회와 침례교 목회자가 부당하게 반선교 활동 정책에 걸려들어 갔다고 항의했다. 바로 부활절 예배 참석을 위해 개인의 SNS에 초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물론 이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과연 러시아에서 종교적 소수인 개신교회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하겠다

고, 공식했기에 그나마 희망은 남아있다. 미 국제종교적자유위원회는 이미 러시아를 가장 종교적 자유가 없는 국가 중 하나로 지적했다. 바로 강력한 야로바야프와 “외국인의 선교활동 불허”로 인해, 개신교회 운동의 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자국민들이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선교의 주역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당신의 사랑을 러시아에 전해주시다. 결국 강력한 선교 책외 정책으로 들어오는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이번 월드컵은 아직 남아 있는 창문들을 통해서 러시아 크리스천들이 러시아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자

연스러운 기회가 된다. 결론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처음으로 정부와 운동 경기 그리고 교회가 마찰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10년 전,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지구촌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전략을 새롭게 준비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대규모 선교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보러온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러시아 월드컵 역시 크리스천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믿음의 현상이 될 것이다.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i)</p> <p><b>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b></p> <p>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p> <p><b>최고의 교수진</b></p> <p>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p>
--	--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유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써,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입술 없는 미소

지난 KAPC 총회 기간에 월드비전의 리처드 스티븐스 회장을 초청하여 비전 특강을 들었다. 그의 30년의 사역을 담은 '구명 난 복음'이라는 저서를 선물로 가져왔다. 요즘 그 책을 읽는 일에 심취하고 있다. 스티븐스 회장은 경영학의 명문인 와튼 스쿨 출신으로 카퍼 브러더스와 고급 도자기 회사인 레녹스의 최고 경영자였다. 그

의 삶은 최상위권의 부유층에 속해 있었다. 5 에이커의 대지에 10베드룸 하우스에서 재규어를 타고, 유서 깊은 교회의 멤버였으며, 다섯 자녀들이 다니는 크리스천 스쿨의 이사로 섬기면서 거의 매일 일등석 비행기로 파리와 런던 피렌체와 유럽의 명문 도시의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비즈니스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월드비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회장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 한 통의 전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의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재난 만난 이웃들을 찾아 섬기고 있다. 온전한 복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인데 나눔 없는 순종과 믿음...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만인 입술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몸과 삶으로 나누지 않는 복음은 구명 난 복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신앙관이었다. '구명 난 복음'을 읽다가 감동의 대목을 함께 나눠본다.

북부 우간다 지역에서 반군들의 의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했다. 임신 6개월 된 마그릿은 동네 여인들과 함께 들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반군 소년단이 갑자기 숲속에서 나타났다. 식량과 물자를 강탈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에 있던 여성들을 무참하게 칼로 죽였다. 폭도들이 마그릿을 죽이려고 다가갈 때 어린인 지휘관이 그녀가 임신 중임을 알고 그녀를 죽이지는 못하도록 했다. 임신 부를 죽이면 재수가 없다는 징크스에 따라서... 그 대신 그녀의 귀와 코와 입술만 자르고 살던지죽던지 버리고 가자고 했다. 절없는 소년병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마그릿의 얼굴 부위를 난도질을 하고 피땀이 된 여인을 버려두고 도망쳐 가버렸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마그릿은 3개월 후에 아기를 출산했다. 모녀는 월드비전의 구호 센터로 옮겨졌고

심리와 정신 치유와 경제적 지원과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훈련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흉물로 변해있는 자신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 상처를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서서히 이기면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회복해 가던 1년 후 어느 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마그릿은 자신을 그렇게 영구적인 흉물로 만들어버린 지휘관이 정부군에게 포로가 되어 같은 재할 훈련소에 도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겨우 공포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려는 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원초적인 충격과 급변해 버린 공포심과 억제할 수 없는 복수심이 뒤범벅이 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급변해 버렸다. 마그릿은 더 이상 자신이 이곳에서 떠나던지 아니면 그 자가 떠나던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센터에서는 이 상황을 동감하면서 그 범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수용소로 이감을 시켰다.

월드비전의 상담자들이 그 범인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동시에 마그릿에게도 상담을 병행하면서 불안을 해소시켜 가면서 용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몇 주간이 흘러나 뒤에서 드디어 그 포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그녀를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난 그녀도 그 남자를 만나겠다고 결심했다. 마그릿은 모든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면서 드디어 그를 만나 용서를 베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지나간 모든 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힘있게 되었다. 센터의 벽에는 기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없는 마그릿과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유일한 사건으로 지금도 걸려 있다. 어린 아들 제임스를 품에 안고 입술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서있는 마그릿... 그녀는 분명 또 하나의 천사의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다.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국교회)



본문 말씀은 바울의 뛰어난 문학적 통찰력으로 역설적인 표현기법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함으로써 보배를 담고 있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인 인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을 역설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보배인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닥친다해도 지혜롭게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질그릇만을 생각하고 문제 속에 빠져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쥐고 있는 분은 능력이신 하나님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경과 고난은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질그릇 같은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그 역경, 고난, 핍박, 낙심 중에서도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그날 영광의 문에 들어갈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맞으실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시선을 두고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세 아이

가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똑바로 걷자고 약속을 하고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빨리 걷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걷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자기가 똑바로 가

## 질그릇 같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15절)

고 있는지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갔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양쪽 옆 아이들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여기 저기를 쳐다봅니다. 세 번째 아이는 나무만 보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결과를 보니 두 아이의 발자국은 삐뚤삐뚤했지만 나무만을 바라본 아이는 그 발자국이 똑바로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엎것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주위 문제들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보배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역경을 당했을 때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것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장래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을 망쳐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므로 내일을 망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의외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만 소도시에 옷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 옷가게가 잘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또다시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와서 가게를 차리면 어쩌나..." 고민 끝에 그 옆에

자기가 가게 하나를 더 차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를 더 차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겠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또 하나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는 이제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가 또 근심이 생겼습니다. 두 가게를 혼자 다 관리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을 종합해 보면 적자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경기까지 나쁘니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의 걱정을 미리 끌어안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망의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도 간혹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재산에, 내 생명에, 내 자존심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붙들고 손톱이 닳아지도록 울고 매달리고 무덤까지 쫓아가려 합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으나 믿음이 없을 때 더욱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애써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심히 큰 보배가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예수의 생명력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삶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잘 들어주는 것만도 치유 가능!

(1면에서 계속)

상대의 생각과 감정과 신념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며, 상대의 말을 나의 비판적 기준으로 걸러내지 않는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으로 그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경청은 느린 작업이다. 잘 듣는 사람은 그 먼 길을 소신껏 가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길을 피한다. 얼른 판단해서 금방 조언을 베풀면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사실 경청 방식을 보면 당신의 생활방식을 알 수 있다. 삶이 늘 빠르고 급하고 부산하다면 들을 때도 산만하게 서두를 것이다. 이해하려는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 자체만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방식까지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논리와 추론을 최대한 많이 구사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에 감정을 담는다. 유머로 고통을 에둘러 가려는 이들도 있고 과장법을 써서 중요한 일에 주목을 끄는 이들도 있다. 잘 듣는 사람은 각자의 개인적 방언을

알아들어야 한다.

나쁜 경청의 흔한 사례를 기억하라

△한 수 더 뜨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는가? 지난주에 나한테 있었던 일을 말해주지!" 상대의 이야기를 말없이 쭉 듣는 이유는 더 낫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것을 능가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대화의 아니라 경쟁이다.

△교묘하게 말 돌리기: "어, 그게 대단한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화자는 경청에 속아 헛되이 방심한 나머지 잠시 후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한다. 즉 이 대화에 대한 듣는 이의 속셈을 모른다.

△심문: "지난주에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듣는 이는 일련의 질문을 던지는데 대개 폐쇄형 질문이며, 마치 형사가 용의자를 심문해 자백으로 유도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경청은 천동을 앞둔 번개이며 평하고 터지기 전에 타버리는 뇌관이다.

△방향틀기: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말이지..." 듣는 이는 화자가 언급한 주제를 서투르게라도 뒤집어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로 넘어간다. 기어이 자기가 원래 하려던 말을 하고야 만다.

△독백: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는 묵묵히 있다가 그 다음부터 아무거나 자기 생각을 말한다. 마치 야간

에 두 척의 귀먹은 배가 마주 지나가는 것 같다. 언젠가 들었던 인용문이 떠오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하는 게 아니라 타인 앞에서 독백을 한다.

△정비사: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은 탈탈거리는 엔진 소리를 듣는 정비사처럼 듣는다. 문제를 진단해 자신이 고쳐주려 한다. 문화적 통념과 달리 남녀가 공히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

△부메랑 질문: "주말을 잘 보냈

는가? 나는 말이지..." 이 사람은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진짜 의도는 자기가 답하려는 것이다. 질문이 나가다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자문자답할 거라면 상대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나는 때로 부메랑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그냥 당신의 주말이 어땠는지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네 메시지가 전달된다.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면에서 계속)

단기선교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지 신중히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재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3. 영적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단기선교는 무엇보다 낯선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또한 영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의 대

화를 통해 사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단기선교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필요(need)에 처하게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기도해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통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Chick-fil-A' 에서 음식을 사먹는 것도 '혐오' 하며 문제 삼는 동성애인권운동가들과 그들의 논치를 보는 Twitter CEO

허락된 '자유(freedom)'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미국에서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도 논치를 봐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정을 가지고 사용해서 더 유명해진 SNS 기업 트위터(Twitter)의 CEO 잭 돌시(Jack Dorsey)가 얼마전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 Chick-fil-A에서 음식을 사고 핸드폰 앱을 통해 할인을 받은 것이 문자(text message)로 기록되었습니다.

보여왔지만, 이런 사건들은 주류 미디어에서는 당연히 아주 가볍게 다루어지든지 아니면 다루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이번에 자유진보주의 성향이며, 동성애자들 편에 선 인물이라고 여겨고 있던 Twitter CEO가 Chick-fil-A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배신행위'나 다름없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Twitter

자(liberal)들은 학교, 공공단체, 정부기관 등등 심지어는 개인사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아젠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조리 '혐오주의자' '편협자'로 몰아붙이고 주류미디어의 힘을 얻어, 일반 대중들에게 마치 동성애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면서도, 사람들

적 리더들과 운동가들이야말로 '혐오주의자'인 게 아닐까요?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신용 기술분야 대기업인 Amazon, Twitter, Google, Facebook 등이 오바마정부와 손을 잡고 그들의 본질을 잃어버린 Southern Poverty Law Center(SPLC)와 손을 잡거나 자문을 받아 '혐오발안'과 '혐오단체'들을 구별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구별하는 기준은 동성애운동가들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SNS에 올라가자마자 다음날부터 동성애 운동가들을 비롯한 자유진보주의자(liberal progressive)들의 별 때 같은 항의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댓글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동성애자들 그룹을 대표해서 말할텐데... Jack, 제발 정신 좀 차리지?"

"빨리 그 이미지를 SNS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동성애 후원단체(GLADD)에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또한 이미 자유진보주의자로 알려진 전 CNN 앵커였던 Soledad O'Brien도 당당히 나서서 Twitter CEO를 비난하며 말하기를, "(Jack) Dorsey가 공개적으로 Chick-fil-A에서 음식을 사먹었다는 것은 지금 '동성애자 금지의 달'을 앞두고 큰 죄를 지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CEO는 황급하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급한 불을 끄려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SNS에 댓글을 남긴 전 CNN 앵커에게도 "맛야요. 내가 Chick-fil-A와 그 CEO가 한 일들을 잠시 잊고 있었어요"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동성애 단체들과 급진 자유진보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를 믿고 그것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평범한 그들의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혐오주의자, 편협주의자 라고 낙인을 찍으며, 도리어 자신들은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자기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말 '혐오주의자'라고 불려야 할까요?

이번 Twitter CEO 사례뿐 아니라 그동안 급진 자유진보주의

CEO는 황급하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급한 불을 끄려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SNS에 댓글을 남긴 전 CNN 앵커에게도 "맛야요. 내가 Chick-fil-A와 그 CEO가 한 일들을 잠시 잊고 있었어요"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동성애 단체들과 급진 자유진보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를 믿고 그것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평범한 그들의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혐오주의자, 편협주의자 라고 낙인을 찍으며, 도리어 자신들은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자기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말 '혐오주의자'라고 불려야 할까요?

이번 Twitter CEO 사례뿐 아니라 그동안 급진 자유진보주의

은 이들에게 '혐오주의자' '편협한 자'로 불리는 것이 싫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스스로 말과 행동에 족쇄를 걸어놓기도 하고, 논치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영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혐오,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기에 더 더욱 진리를 수호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죽음으로 향하는 삶의 방식이나 동성애 운동가들의 교묘한 아젠다가 일반화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호할 따름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자신들의 아젠다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혐오주의자' '증오자' 또는 "편협자" 등등의 모독스런 명칭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가는 정치

따라서, SPLC라는 단체가 '혐오단체'로 구분한 명단에는 기독교적이고 보수적인 가치 수호를 위해 싸우는 ADF단체와 심지어는 벤 카스 주태복지부 장관까지 '혐오, 증오 인물'로 구분했다는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결혼을 성경적으로 믿는 알려진 모든 기독교 단체, 개인 등등이 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고 자신만의 편파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체와 사람들을 단정 짓는 SPLC와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의 이러한 구별은 참모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들이야말로 진보주의자(liberal)들이 보수적이며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명목인 사람들 간에 분열을 야기하는 자라는 지점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혐오로 여겨지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며 사랑을 잃지 않되 주님의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근거도 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자, 증오자, 편협자들로 몰아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는 '혐오자, 편협자' 지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이든 그 누구든지 근거 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자로 매도하는 일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급진 자유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 옹호단체들의 생각의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hyunlee@gmail.com

**Q:** 한국은 현재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서로 양극을 이루며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6.25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상극인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런지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허정운 박사의 글에 의하면 "해방 후에 한반도는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국에 의해 남한에서는 미국적 자유 민주주의 체계가, 북한에서는 소련의 소비에트적 공산주의 체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미국적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택해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남한이 택한 미국적 자유 민주주의 체계는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

### 유물사관 공산주의는 무신론... "종교는 민중의 아편" 주장

태입니다. 권력의 분리와 감시를 지향하는 공화제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 주권주의와 입헌주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상의 자유, 소유의 자유가 가장 큰 가치를 이룹니다. 공산주의란 말은 공공부락, 공유(共有)주의의 뜻을 가진 정치적 술어가 아닌 경제적 술어입니다. 근래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사회주의란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Karl Marx, 1820-1885),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 독일)가 일어나서 1848년 소위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1848)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공산주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이 마르크스주의(Marxism)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산업화 된 자본주의 사회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한 단계 넘은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사회로 바꾸어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수립하려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를 중심한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세력이 현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가진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 또는 투쟁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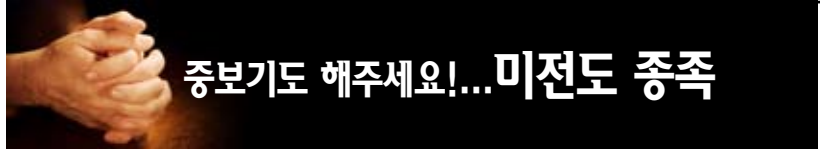
마르크스 엥겔스의 유물사관은 물질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레닌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다. 유물론이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입니다.

1917년 레닌(Vladimir Lenin)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을 계기로 세계에 혁명의 열기를 불어 넣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최고 수준의 과학적 무신론입니다. 신의 존재를 전혀 부정합니다. 마르크스는 1843년 "헤겔 법철학비판 서설"이라는 논문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면서 기독교가 천국이라는 아편으로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의 혁명지지를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모든 종교는 미신이며 다른 철학적 사상들에 대해서는 게으른 부르주아지(자본가무리들)의 잠꼬대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90-7090, Fax. (82)2-562-5770</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525-7767, HP. (017)237-8258</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Tel. (82)32-588-0191, Fax. (82)32-562-2738</p>	<p><b>승송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011)82-2-842-1968</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팩스(02)312-501-1</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Fax. (02)842-688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팩스(02)312-501-1</p>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풀라니(FULANI)



중양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북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카메룬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는 땅에 살고 있다.

풀라니족은 구별되는 여러 하위 부족들이 많이 있다. 서쪽의 세네갈에서부터 동쪽의 수단에 이르기까지

구리 빛의 피부색과 직모, 오뚝한 코, 얇은 입술 등의 신체적 특징은 코카서스 인종의 기원을 가지며, 오랜 역사 동안 다른 종족과의 통혼은 여러 풀라니족, 특히 풀라쿤다족에게서 흑인의 특질을 낳았다.

역사적으로 풀라니족은 유목민으로,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소떼에 먹일 물을 찾아다녔다.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주해온 이후, AD 900년에서 1900년의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점점 세네갈과 기니에서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퍼져갔다. 그들이 방랑하는 동안 힘없는 부족들을 많이 정복

했다. 많은 풀라니족들은 전통적인 유목생활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버리고, 정복한 부족들 가운데서 정착생활을 시작했다. 오늘날, 약 7백만의 풀라니족이 아직도 유목민 생활양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2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정착해 반유목민 또는 농촌, 도시의 생활양식을 가지게 됐다.

삶의 모습

일부 풀라니족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곳에 영구 정착해 반유목민의 생활양식이 가장 선호되며 보급돼 있다. 중앙아프리카의 북부와 서아프리카의 무더운 열대 기후에는 우림기와 건조기, 단지 두 계절만이 있다. 반유목민인 풀라니족들은 이러한 계절과 성별에 기초한 엄격한 노동 구분에 따라 생활의 변화가 있다. 우림기에는 영구 정착촌에 소

와 양, 염소를 두고 남자들이 가축들을 치지만, 우유 짜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다. 남자들은 수수와 쌀, 팥 등 작물을 파종하고 재배하며 수확한다. 또 적당한 목초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기른다. 그동안 여자들은 물과 빨감, 옥수수를 가져와서 매일 오후마다 너털 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이런 힘든 일 외에도 여자들은 움막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명석을 만들고 면화를 짜며 수프를 만들고 자녀들을 돌본다.

건조기에 풀라니족들은 그들의 다른 면인 유목민의 생활양식을 취한다. 마을의 급수가 고갈되는 것을 감당하느니보다는 젊은이들이 노인, 여자, 아이들을 마을에 남겨두고, 소를 몰아서 다른 급수원을 찾아 나선다. 이것은 우림기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유목민 무리가 거거하는 이동식 캠프는 나무 덩굴과 가지를 세우고 짚과 나무 잎사귀, 명석 등을 덮은 것이다. 대부분의 풀라니족은 글을 읽지

못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을 학교로 보내 기도와 코란 암송을 익히게 한다. 풀라니족은 이미 거액의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책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함으로서 존경받는다. 인생에 대해 가치 있는 교훈을 주는 속담과 이야기에 높은 가치를 둔다.

신앙

풀라니족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최초의 아프리카 종족 중 하나이며, 오늘날 99% 이상이 무슬림이다. 무슬림들은 예언자가 모하메드가 신의 최후 최고의 예언자임을 믿는다. 신이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에게 계시를 했다고 한다. 이슬람은 풀라니족에게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슬람으로부터의 이탈은 경멸 대상이 되며 전 공동체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풀라니족은 여겨서는 안되는 금

기사항과 규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들 중 중요한 것 하나는 배우자와 부모, 시부모, 딸아들, 딸들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다. 그들은 또 이슬람 음식법을 지키며,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염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풀라니족은 그들 언어로 된 성경 일부가 여러 권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라니족 대다수는 무슬림으로 남아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의 적대감을 두려워해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도와 종보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51% "트럼프 협상 잘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신뢰하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는 미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13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남부침례교연맹 연례 총회에 연사로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란 용감한 첫걸음을 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신뢰하되 검증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신뢰하되 검증한다'는 말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미·소 군축 협상을 하면서 자주 언급한 소련 격언이다. 당시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극심한 냉전 상황에서 서방은 소련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소련 격언은 레이건 대통령의 집념 아래 잘 지켜졌다. 핵 폐기 검증 시스템이 마련된 데 이어 전략핵무기 감축 협상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국인 다수도 회담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2~13일 미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표본오차 ±4%)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대박난 싱가포르...들인 돈의 38배 홍보 효과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업체 멜트워터는 14일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 비용을 부담해 얻은 홍보 효과가 들인 돈의 약 38배인 6200여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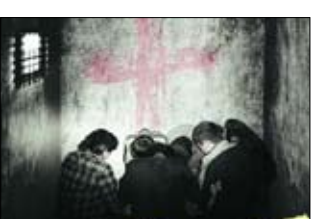
업체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위해 현지에서 머문 3일간(지난 10-12일) 싱가포르가 누린 홍보 효과를 2억 7000만 싱가포르달러(약 2188억원)로 추산했다. 온라인에 게재된 전 세계 언론 보도에서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언급된 빈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다.

멜트워터는 회담 장소 결정 과정과 이후 준비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언론에 노출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홍보 효과가 7억6700만 싱가포르달러(약 62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와 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노출까지 고려하면 홍보 효과는 훨씬 크다고 업체는 덧붙였다.

싱가포르가 정상회담 개최에 부담한 비용은 2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2억원)다. 리센룽(사진)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이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 부담하겠다"며 "싱가포르의 깊은 관심사인 국제적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라고 설명했다.

"북한, 종교활동 이유 119명 처형 770명 수감"

미국 국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명이 처형당했으며, 770명이 수감됐다. 이 밖에 종교적 이유로 87명이 실종됐고, 48명이 강제이주 당했으며, 44명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 1만1,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6%가 북한에서는 종교자유가 전무하다고 답했다. 1만 2,032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4.2%에 불과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개인우상화에 위협이 된다며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주민들도 기독교는 곧 악이라는 교육을 받아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19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였으나 2002년에는 0.016%로 줄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극심하게 침해당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자유아시아(RFA) 보도에 따르면,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종교자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기억해달라"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북한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수만 명이 강제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오픈도어즈 담당자인 토 스키스 대표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도소와 강제수용소에 있다. 이들은 오직 신앙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비인간적이고 수준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조직적인 박해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의 일부 분이다. 북한에 진정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를 바라겠지만, 이 절망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은 끝났으나, 비핵화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워싱턴에 소재한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 앤서니 루지아로 박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우리가 10여 년 전 그만두었던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처럼 보이며 의미있는 진전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합의문에는 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국으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웬비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웬비어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평생 기억할 것"이라며 "웬비어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은을 '매우 열렬한', '매우 똑똑한' 지도자, '주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언급하며 칭찬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를 무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동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상황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도 불가분의 관계"라며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노동력과 자원들은 북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인권"

목발의 탈북민 지성호씨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 주최 포럼에 참석해 "(북한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씨는 "보통 한반도 통일을 말할 때 영토적인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통일이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죽어갈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답변할 책임이 있다. 당신들의 인권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의회 국정연설에서 지씨를 '특별게스트'로 깜짝 등장시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자"라고 지씨를 소개했고, 그는목발을 머리 위로 들어보였다.

1996년 굶주린 소년이었다던 그는 식량과 맞바꾸기 위해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다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했다. 지나가던 열차가 지씨를 덮쳤고 그는 가슴소 목숨을 건졌으나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인물이자.

작년 가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인권행사에 참석했던 지씨는 그 자리에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히 전했다.

그는"2000년에 목발을 짚고 중국으로 건너가 몇 키로그램의 쌀을 구해왔다. 북한에 돌아와 경찰에 잡혔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한 건 공화국의 수치라고 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이다.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받았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라고 했다.

지씨는 "그런 불의가 저로 하여금 북한을 탈출하게 했다. 2006년 목발을 짚고 남동생과 함께 탈북했다. 떠나기 전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 나누는 기억이 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함께 포옹하며 울었다"고 했다.

그는 "동생과 북쪽 두만강을 건넜다. 그러다 깊은 곳에 빠졌는데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두만강을 건넜다. 동생에게 감사하다"며 "그렇게 목발을 짚고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6천Km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목발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 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다"고 했다.

"하버드대 입시 아시아계 차별"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다른 인종에 비해 낮게 평가한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위한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하버드대가 위치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 하버드대의 인종차별을 문제 삼았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긍정적인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함 등 추상적인 항목인 개인적 특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입학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대신 시험성적, 과외 활동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3년 하버드대 자체 조사 결과 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학생 비율이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이런 차별 때문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입학 전형 절차에 차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입학률이 29%나 상승했다"며 "거론된 자료는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멜라니아 "밀입국 가족 격리 No"

미국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경우 성인은 모두 구금, 기소하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는 따로 수용하는 미 행정부의 정책을 놓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 이어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에 대해 아내가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치적 사안에 관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는 대변인을 통해 '밀입국 부모-자녀 격리 정책'을 비판했다. 영부인 공보담당 스테파니 그리섬은 17일 CNN방송에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나라뿐 아니라 가슴으로 통치하는 나라로 원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정책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국토안보부는 4월 19일-5월 31일 국경을 몰래 넘어 붙잡힌 사람들의 자녀 1,995명을 격리해 텍사스주 수용시설에서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불법 입국을 억지하는 정책이며,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하면 법을 어길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와 상관없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국경지대 주(州)에 살고 있는 나로서 우리 국경을 공권력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 관용 없는 정책은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트위터에 "아버지의 날(17일)에 국경에서 부모로부터 격리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생각한다. 이 아이들은 협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자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도 18일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이드 대표는 이날 개막한 제38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어린이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국제아동협약 비준도 촉구했다. 미국은 국제아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WHO "게임 중독은 정신질환"

"게임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부모들의 잔소리가 과학적 근거를 앞세워 전말이다. 앞으로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 게임 중독을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라는 새로운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ICD가 개정된 것은 28년 만이다.

WHO는 게임 장애에 대해 '몰라임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셰크하르 삭세나 WHO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국장은 콘퍼런스콜에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53. 김탁(1888-1953)

김탁은 1888년 9월 6일에 태어났다. 그는 경상도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에 서북간도로 가서 한문학자로서 한인 교육계에 종사했다. 1914년 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 서기로 선임되었던 1914년부터 '쇠소리가 나는 때에 옥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치를 어김이라'는 글을 신한민보에 기고한 1917년 사이에 부인은 한국에 두고 혼자 도미했다. 1918년에 그는 중가주 다뉴바의 이SK의 한인 농장에서 노동하였다. 당시 그는 눈이 좋지 않았는데 이 무렵 크리스천이 되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다.

근 순회 구역 목회자로 선임된다.



김탁 목사

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1927년 7월 21일 신한민보에는 스타튼 예배당 이전에 관한 흥미로운 광고가 나온다.

"스타튼 예배당 집을 8월 8일에 다른 곳으로 옮기오니 예배당 아래층에 불건을 두신 여러분은 그 안으로 다 찾아가시오. 지금 옮기는 집에는 돌 곳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책임을 진 것은 아니지만 8월 8일 이후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시고 그 안으로 속히 찾아가시오." 새 예배당 주소는 이스트 헤לט톤 애비뉴 409번지였고, 전화번호는 7486W였다.

이듬해 7월 26일 스타튼 예배당에서 김탁의 주례로 스타튼에서 영입하는 박영제와 사도에 거류하는 김병건의 딸 김자혜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예식을 마친 후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축복의 의미로 뿌린 쌀은 마치 소낙비같이 떨어

1928년 9월 3일 상항에서 모인 미국 남감리교 동양인 교회 구역 대회에서 김탁은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는 1930년에는 임정구 목사와 함께 순회 사역을 감당했다. 1931년에 일본교회와 한인교회가 갈려져 태평양 연회 하 동양선교 지방회 아래 두 개의 구역으로 분리되고 자체 연회를 가진다. 이 해에도 임정구와 함께 사역하였다.

그런데 그는 스타튼 한인감리교회와 인근 순회구역에 1937년까지 목회하였고, 1938년에 임정구가 그를 이어 목회하였으나 1939년 본 교회는 문을 닫았다. 김탁이 섬기던 기간 출석 교인은 1929년에 80여 명, 1930년에 70여 명, 1931년 이후 60여 명이었고, 1935년에 80여 명이었던가 1936년에 20여 명으로 하락했다.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달라노교회 여교우

하였으며, 22일부터는 제2세 청년들을 모아 국어를 가르쳤다. 본 교회에 부임하던 그해 9월 6일에 그는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예배당 매각비 500달러와 델라노 한인감리교회 출석 교인 41명이 현금금 건출금으로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본 교회는 나성한인장로교회가 건축할 때 800달러의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해 성탄절은 12월 24일 오후 7시30분에 태극 클럽 청년회 주최로 거행됐다. 회장 한유선의 사회 하에 국어학교 생도들의 찬송과 성경 낭독이 있었고, 김윤필근의 누가복음 2장 낭독, 윤캐리와 한유희의 감성연설, 클럽 전체의 합창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만큼 예식이 진행되었다. 한시대 장로의 간단한 전도와 김탁의 축도로 예식을 마쳤다. 그 날의 클라이막스인 산타클로스가 나와 예물을 분배한 후 폐회했다. 김탁이 부임

애족운동

김탁의 애족 운동은 국어학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923년 11월 여관의 방 한 칸을 빌려 5명의 아이가 모인 가운데 배달국어학교를 개교하고 주중 매일 김탁이 한글을 가르쳤는데 이곳을 떠날 때까지 그의 국어교사직은 계속되었다. 1928년 9월 20일에 기고한 '국어교육에 관하여'에서 그는 "우리 국어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국혼이며,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가 열렬의 참혹한 화를 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하겠으며 자녀에게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한 사람들도 깊이깊이 연구하여야만 되겠다"라고 일갈했다.

1929년에는 '조선어독본'을 사용했다. 1924년 김탁의 사회로 스타튼 동포 약 75명이 모인 가운데 삼일절 행사를 개최하였고, 매년 삼일절 기념식 행사에 김탁이 깊이 관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의무금, 인구세, 재만동포 동정금, 중국혁명후원금 등을 기쁘게 기부하였다.

달라노로 이주한 후에도 그의 애족운동은 계속된다. 특별히 국어학교를 태극국어학교라 명칭하고 국어교육에 큰 힘을 쏟았다. 국민회 델라노지방회가 창립되면서 삼일절 기념식과 국지기념일 그리고 순국선열 기념식 등이 본 교회에서 있었고, 이들은 그에게 중대한 애국운동이었다. 의무금과 인구세는 물론 그는 임시정부 후원금, 광복군 후원금, 쿠바동포구제금, 독립금(군사운동금) 등을 납부했다.

해방 후

1946년 이후 교적 교인은 급격히 줄어 2, 30명이었고, 활동 교인도 마찬가지였다. 연회보조가 없었던 반면 상회부담금은 1948년까지 4, 50달러를 냈고 1949년 이후 100달러를 넘어서 1952년에는 197달러에 이르렀다. 그런데 1951년과 이듬해 연회보조가 900달러나 되었다.

소천

김탁은 1953년 9월 23일에 소천한다. 1929년 3월에 도미한 부인 김경자에게서 에바, 엠마 그리고 애다 등 딸 셋을 두었다. 고속도로가 들어서자 1954년 10월에 교회 건물을 클린턴 스트리트 1028번지로 이전했다. 한인 동포의 수가 줄어 1958년 6월에 교회 문을 닫았다. 현재 아프리카 어머니의 뉴호프 침례교회로 변신했다.

damien,sohn@gmail.com

## 도미 후 신앙 가져...1924년 미남감리교 연환회 첫 전도사 1928년 목사안수 받고 임정구 목사와 동역...36년 달라노로



스타튼교회와 김탁 목사



달라노한인감리교회 내부



김탁 목사 묘비

이해는 스타튼 한인감리교회 사역 외에 부가된 사역이었다. 1927년 현재 출석 교인은 48명이었다. 그리고 그해 매월 몇 번씩 리들리를 방문하고 교회 개척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한석원이 리들리에 거

저 직장을 하얗게 덮었다. 이후 박양찬관에서 준비한 연회실로 모였는데 다뉴바와 상항에서 온 친구들까지 남녀노소 약 100명이 즐기다가 밤 12시경에 해산했다.

1936년 3월 15일에 김탁은 한석원에 이어 중가주 달라노 한인감리교회와 인근 순회구역 목회자로 부임한다. 그는 그달 21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 주일학교도 시작

하던 1936년 이후 3년간 출석교인은 40명 선이었다.

1939년에 와서 미국 남북 감리교회가 통합되면서 일본교회를 제외한 중국교회와 필리핀교회 그리고 한인교회로 가중동양선교연회가 조직되었다. 1939년부터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교적교인은 60여명이었고, 비 활동교인은 20명에서 많게는 40명에 이르렀다. 주일학교 출석수는 20명 내외였다.

1940년부터 교회 주소를 사서 함 745로 옮겼다. 이해부터 연회가 목사봉급을 위하여 360달러를 보조했고 이 금액은 1942년까지 계속된다. 1940년 교회가 지급한 목사 봉급은 243달러였다. 1941년에 달라노교회는 상회 부담금으로 15달러를 냈는데 이후 계속 부담금을 납부했다. 1942년 이후 30달러 선에서 1945년 이후 40달러 선으로, 1947년 이후 50달러 선으로 뛰더니 1949년 이후 100달러 선으로 올랐고, 1952년에는 무려 197달러까지 납부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경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a href="http://www.bethelchurch.org/">http://www.bethelchurch.org/</a>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a href="http://www.bethelchurch.org/">http://www.bethelchurch.org/</a>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말)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살롱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오후예배: 오후 8:00 주일부흥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평 일, 유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a href="http://www.kpccseattle.org">www.kpccseattle.org</a>	<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a href="http://www.onychurch.org">www.onychurch.org</a>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a href="http://www.jrs.com">www.jrs.com</a>	<b>앵커리지베렐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6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중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a href="http://www.lacomcric.com">www.lacomcric.com</a>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a href="http://www.kcuo.org">www.kcuo.org</a>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리더십 코멘터리 (6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도전정신으로 생각을 충추게 하라

영국 속담에 “생각이 좁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생각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지렛대이다. 자동차의 기어는 그 자동차의 방향을 움직이는 시작이다. 1단을 넣으면 1단으로 가고 뒤로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간다. 기어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이다.

“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우연히 현재가 다가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소 마음속에 이렇게 살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것이 옷을 입고 현재로 나온 것이다. 지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세계가 옷을 입고 나온 것이다. 지상에 큰 건물들이 지어지면 먼저 지하에 튼튼한 기초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듯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한 생각이 중요하다. 내

가능성을 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라

호텔이나 관공서에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스터키를 사용하면 어떤 문이든지 모두 열린다. 인생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는 무엇일까? “맛있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다. 잘 팔리는 것이 맛있는 요리”라는 창업 성공 노하우의 책을 쓴 쇼가키 야스히코는 스카게티 전문점 ‘사이제리아’를 열었다. 그는 의욕적으로 이탈리아에 가서 스카게티 기술을 배워서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았다. 스카게티의 맛은 뛰어나지만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해서 설문 조사를 해보았더니 가격이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 모든 음식 값을 절반으로 내렸다. 이때부터 야스히코의 사업은 불이 붙었다. 그에게 사업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도전과 변화이다.’ 지혜자는 “변화하려는 리더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충고한다. 리더여, 변화를 시도하라. 지금은 변화를 시도해서 일을 성취해야 할 때이다.

판매할 때 48%는 단 한번 권유하고 포기하고, 25%는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하며, 15%는 세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 세일즈맨 중 오직 12%만이 네 번 이상 권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네 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전하는 리더는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확신을 가져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리더여, 지난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는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도전하라. 당신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도전하는 리더를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가치 있는 리더가 되라

올레는 원래 제주도 방언으로 ‘좋은 길’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Olleh를 거꾸로 하면 Hello가 된다. 이것은 일종의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훌륭한 마케팅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

## 생각이 삶에 직접 영향... 바른 생각이 바른 인생 설계해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

인생은 생각하고 그러대로 이루어진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무슨 일을 하던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생의 터는 무엇일까? 생애를 지어어나가는 터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로 잡혀야 그 위에 올바른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펼쳐진다. 리더가 생각하는 터가 넓고 바로 건강하면, 그 리더십은 넓고 바로 건강하다. 만약 생각이 터가 좁고 병들었으면, 그 리더십은 좁고 병들 수밖에 없다. 인생은 생각하고 그런 대로 이루어진다. 마음 속에 늘 생각하고 그 모습을 그런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비즈니스에서의 성공과 결실을 보면 그 생각을 알 수 있고, 영적리더는 하나님을 주신 비전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면 그 생각을 알 수 있다.

일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건강한 생각을 가진 리더의 출현이 기대된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나라에도 문제가 있다.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과 인간사회에는 크거나 작거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하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리더는 언제나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리더는 해결 중심으로 생각한다. 소극적인 리더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지만, 적극적인 리더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는다.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변화를 만든다

리더는 분명한 도전 목표를 정해야 한다. 변화에 도전하는 리더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도전하는 리더만이 해낼 수 있다. 성취를 이루어낸 리더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도전한 사람들이다.

KFC의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는 스스로 고안한 닭튀김 제조법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무려 1,005 번이나 거절을 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는 데 만 번에 이르는 실패를 반복했고,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해 8개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아무리 작은 성공확률이라도 계속해서 시도하면 그 확률은 예외 없이 100%에 가까워진다. 성공 확률이 1%만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도전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100% 실패한 것이다. 위험이 있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한다.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공개했다. 세일즈맨이 물건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혹은 예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새로운 관점,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무조건 긍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보고 뒤집어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발상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

발상의 전환은 고정된 생각이 아닌 창의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무조건 긍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보고 뒤집어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발상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

“망매지갈”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매실의 신맛을 생각하면서 침을 내어 목마름을 일시 면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생각이 실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리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모여서 리더십이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도전정신으로 생각을 충추게 해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기원한다.

sondongwon@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 한 술 더 뜨는 여로보암의 악행

참고 말씀: 왕상 11-15장(대하 10-13장) 묵상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열상14:8, 9).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15:30).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에브라임 족속(과부 수루아의 아들)으로 선지자 아하야가 솔로몬이 요셉족속의 역사를 감독케 한 큰 용사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왕후들의 우상을 좇고 하나님 길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치 않기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열 지파를 찢어 그에게 주리니 만일 다윗의 길을 따르면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니 솔로몬이 저를 죽이려하여 아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돌아오다.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대표격으로 영로한 장로들이 멩애를 가뭇게 해주기를 청하려 갔으나 아버지는 재책을 주었으니 나는 전갈을 주리라 저를 찢으니 이스라엘 10지파가 반역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유다왕에게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벨엘과 단에 두고 누구든 원하면 아무나 보퐁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유다의 절기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 이스라엘로 그곳에서 분향케 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수록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스스로 보퐁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사람을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폐하니 저들과 이스라엘은 지파 중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려 유다로 이주해와 삼년간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다(왕상12:25-33, 대상11:13-23).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아내를 가장하여 선지자 아하야에게 보내니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은 오직 아이만 온 이스라엘이 슬피 장사하고 묘실에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찢어 주고 왕이 된 후 하나님을 버리고 정직하지 않고 전 왕보다 더 악하여 하나님을 밀어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여호와를 격노케 하니 여로보암의 집을 말갈게 쓸어버릴 것을 선포하신다.

자신을 속여 자신부터 죽이고 가장 가까운 가정을 죽이고 가까이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과감히 죄를 짓도록 본을 보이고 세상을 사랑토록 오도하는 그런... 외모는 거룩한 주님의 종이나 속 깊은 마음은 세상의 영광에 목마른 주님께서 토해 내질 그런 자가 아닐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쉽사리도 넘어지지 잘하는 자신을 흔들려 본다.

heenlee55@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후 08:45 수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세 배 기도회: 오전 (화-토) Tel: (917) 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세 배 기도회: 오후 8:30 새 배 기도회: 오전 6:00 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Fax 겸용),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co.org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 오후 8:30 금요일사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 406-7577, (718) 3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nc.com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 342-9194, Fax: (201) 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찬양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www.pcov.org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비성교회</b>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성경기도: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b>퀸즈한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 672-1150 Fax: (718) 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목회서신

하나님과의 독대



여승훈 목사

끊임없이 활동하는 분위기에 의존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칫 기도의 영이 고갈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자기 부인(Self-denial)'에 있다.

'자기 부인(Self-denial)'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시간을 가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공급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용기를 얻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삶을 재정비 하는 시간이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는 그의 저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순간일수록 혼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는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하기 때문이며, 혼자일 때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주하게 활동하는 시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무엇인가 바쁘게 활동은 하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분(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격이 없을 때가 많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쁜 활동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다. 마틴 루터는 그의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세 시간을 떼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최소한 하루 7분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독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만약 당신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비즈니스에 7분 일찍 가서 손에는 그날 주어진 말씀을 들고 눈으로는 그 말씀을 조용히 읽으며(5분) 읽은 후에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2분)을 가져보라. 그리고 그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라. 7분은 최소한의 시간이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하루 일과 가운데 시간을 따로 떼어 내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에 사활을 걸라. 만약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시들해져 갈 것이다. 일하는 활동과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에서 가장 깊은 평온을 누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40여 세미나 중 한인총회 20% 강사배정

PCA 한인교회연합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홍원기 목사(수도노회)

미국장로교(PCA, 총회장 Alexander Chun) 총회(6월 11-13일)와 산하 한인교회연합회인 Coalition of Korean Churches(CKC, 6월 11-15일) 총회가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역대 가장 많은 총대 1,484명의 총대와 90여 명의 한인 목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교단의 전체 86개 노회 중 한인 노회는 9개로, 금년 회장인 홍원기 목사는 한인 수도노회에서 추천됐으며 수도노회와 함께 총회 개최지 지역인 한인 동남부 노회가 최선을 다해 총회원들을 섬김으로 참석자들의 칭송을 받았다.

CKC는 가족들을 포함 약 170명 정도가 모여 교단 행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교단과의 관계도 정립하고 많은 한인 2세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한인 교계의 장래를 밝히려는 교단이 됐다.

CKC는 교포 2세로 서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총장이 된 김은일 총장을 강사로 첫날은 한국말로 둘째 날은 영어로 수련회를 인도함으로써 1세와 2세에게 모두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CKC는 40여 세미나 강사 중 20%에 가까운 강사를 배정받음으로 예년보다 더 큰 참여 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PCA는 제 46회 총회장으로 Dr. Irwin Ince를 선출했다. 전체 회원교회의 1%(30교회) 남짓한 흑인교세에도 불구하고 증경총회장



PCA한인교회연합회 총회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Charles McGowen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출, PCA는 역사상 최초로 흑인 총회장을 선출했다.

그동안 백인 위주로 움직이던 총회는 수년 전부터 인종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섰던 총회는 그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토론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그의 일환으로 지난해는 12%를 차지하는 한인교회에서 2세인 Dr. Alexander Chun을 총회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인종화합의 일은 금년 총회에도 계속됐고, "이렇게 진행되는 추세라면 내년에는 어쩌면 비슷한 교세를 가진 히스패닉 교회에서도 총회장이 탄생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 하다"고 총회 참석자 나성균 목사(살롱장로교회 담임)는 밝혔다.

Irwin Ince 신임 총회장은 1968년생으로 뉴욕에서 출생해 뉴욕 시

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모토롤라(Motorola)에 취직해 수석지도원 중 한명이 될 정도였으나 MBA를 공부해 세상의 출세 가도를 달리는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 RTS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커버넌트에서 목회학박사학위(D. Min)를 받았다.

그는 원래 New Bethel Baptist Church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Dr. R.C. Sproul의 Legonier Ministry에서 영향을 받아 PCA로 전향하고 가입 후 활발하게 총회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인종간 화해에 남다른 열정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총회 인사부장과 여성사역 연구위원장으로 봉사했다.

포도맥노회 소속으로 그레이스 다문화선교기관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인 Kim Ince와 네 자녀가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샌디에고교협 주최 2018 연합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호성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샌디에고교협 2018연합부흥성회, 강사 호성기 목사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회장 서명성 목사)가 주최한 2018 연합부흥성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전4:20) 주제로 14일부터 7일까지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심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부흥회는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첫날인 14일 저녁 부흥회는 심창섭 목사 인도로 시작, 정영락 목사(예수마을교회)가 기도했으며 호성기 목사가 '사모함의 능력'(막 10:46-5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은식 목사(제일침례교회 은퇴)가 축도했다.

강용훈 목사(연합장로교회) 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새벽기도회는 호성기 목사가 '삼성의 능력'(마 15:21-2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창후 목사(소망교회) 인도로 시작된 저녁집회는 김진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기도했으며 호성기 목사가 '믿음의 능력'(마 17:14-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창기 목사(영락교회 은퇴)가 축도했다.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심규섭 목사(출라비스타장로교회) 인도로 호성기 목사가 '삼무의 능력'(히 12:14-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같은 날 저녁 부흥회는 정수일 목사(한빛교회) 인도로 정복균 목사(우리교회)가 기도했으며 호성기 목사가 '성숙함의 능력'(행 12: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이종범 목사(영락교회 은퇴)가 축도했다.

17일 저녁부흥회는 서명성 목사 인도로 시작, 김희수 목사(베델교회)가 기도했으며 호성기 목사가 '은혜의 능력'(고후 4:1-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조주호 목사(새생명교회)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OC교협 주최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박공서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회개, 성결, 생활영성, 구속의 책"

OC교협, 박공서 목사 초청 요한계시록 세미나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주최 박공서 목사(세부천교회 담임) 초청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14일과 15일 양일간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개최됐다.

14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박공서 목사는 "기독교는 종말론적 역사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시록은 회개, 성결, 생활영성, 구속의 책"이라 설명했다.

박 목사는 "계시록은 신학적 신비적으로 보게 되는데 계시록은 성경전체의 결론이고 핵심이며,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계시록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망이 될 수도 고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기, 모세오경을 원리적으로 사각화 시킨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가구 기부해주세요'

가정폭력피해자 자립 주거 안정 돕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가구를 기부 받는다.



한인가정상담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가구를 기부 받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안정의 기반을 위한 필수 가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임신 6개월인 A씨(30)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계속되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뒤 한인가정상담소의 도움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집에 병상과 이외에 다른 가구가 없다. 작은 식탁조차 없다. A씨는 7살짜리 딸을 돌보아야 하는데다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풀타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로 어렵다면서 아들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 B씨는 아들을 위한 책상이 절실하다. 카니정조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자립 과정에서 주거 문제, 생계, 취업

난, 건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생존자들이 이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구 물품은 100%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가정폭력프로그램 김선희 매니저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단절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립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며, "한인 가구 비즈니스 업체 중 뜻이 있는 곳이 있다면 함께 협력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우세린 가정폭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담당(직통213-235-4844)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UMC 한인교회 담임목사 임지 이동

남가주 지역의 연합감리교회(UMC) 한인교회 담임목사들이 임지를 이동한다.

나성금관교회를 담임하던 정상용 목사가 하와이 아이에야연합감리교회로, 세리토스UMC를 담임하던 이석부 목사가 나성금관교회로, LA복음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이영성 목사가 하와이 감람연합감리교회로 파송되며 LA복음연합감리교회에는 아이에야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가 부임한다.

감람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안정섭 목사는 벨리에 있는 밴나이 스연합감리교회로, 또 마우이에서 영회회중을 담임하던 임재만 목사는 오후에 있는 영회회중교회인 킬로마나연합감리교회로 파송됐다.

새로운 교회로 파송된 목회자들은 오는 7월 첫째 주일부터 부임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교역자들 친목과 단합...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탁구대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KECA) 탁구 토너먼트 대회가 유니온교회에서 열렸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KECA, 회장 안신기 목사)는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30분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정기 기도를 갖고 점심 후 탁구대회를 열었다.

회장 안신기 목사는 교역자들의 친목과 단합으로 두터운 목회자됨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이경원 목사(오렌지중양성결교회 담임)의 인도로 남부지방회장 김성식 목사(토렌스우리교회)의 기도, 둘로스선교회 황의정 목사의 설교("잘 마치고자 하는 지도자를 위하여"), 바이셀리아 면류관교회 이정성 목사의 인도로 목사, 교단 교회, 세계평화의 세 가지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한 후 총무 김시은 목사가 광고했다.

김시은 총무는 앞으로 있을 탁구대회와 1차 7월, 2차 8월에 있을 보스턴지역 청교도리더십 비전 수련회 모임이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직전회장 김희창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식사 후 시니어, 주니어 팀으로 나눠 탁구 토너먼트를 가졌다.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시니어 우승: 김중호 목사(예향선교회) ▲주니어우승: 김시은 목사(토기장이교회) ▲그랜드승자: 김시은 목사.

▲문의: (909)677-0028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 동부교계 게시판



## 제 4차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제 4차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준비 기도회가 6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린다. 또 롱아일랜드 지역교회 준비기도회는 7월 1일(주) 오후 6시 뉴욕감리교회(담임 강원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 행복한 관계 전도 세미나 및 집회

뉴욕전도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주최하는 행복한 관계 전도 세미나 및 집회가 6월 25일(월)과 26일(화) 뉴욕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송기배 목사(반석교회 담임, 가정사랑학교 대표)로 오전 10시20분부터 2시간 강의와 저녁집회(오후 7시30분)로 진행된다. 오전 세미나 등록비는 30달러.  
▲문의: (718)888-0788, 840-8931

## 뉴하트선교교회 선교대회/세미나 2018

뉴하트선교교회(담임 정민철 목사)가 주최하는 선교대회/세미나 2018이 "다음 세대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Next Generation Church & Leadership)이라는 주제로 7월 19일(목) 21일(토)까지 본 교회당(1351 Northern Blvd. Manhasset)에서 열린다. 저녁집회는 오후 7시30분, 세미나는 20일(금) 오후 3-5시 김의원 목사 목회자 세미나, 21일(토) 오전 10시-12시 평신도/목회자 세미나, 오후 3-5시 평신도/목회자 세미나로 북미, 한국, 우간다, 동아시아 등 에서 사역하는 6명의 선교사가 초청된다.  
▲문의: (516)627-5700

## 스마트폰 초종급반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초종급반(80기)이 6월 30일(토) 오후 10시 30분-11시 50분까지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전화 연락처 등록하기, 메시지보내기, 알람 설정하기, 사진찍어 보내기, 영상통화하기, 카카오톡 사용하기 기초, 유튜브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앱다운로드 받기, 신문/TV 방송 듣기, 성경찬송 보기 등.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LG폰) 위주로 강의한다. 선착순 마감.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1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문의: (718)414-4848

## 퀸즈장로교회 2018년 단기선교 시작

### 7월 9일 케냐를 시작으로 8곳

[정정: 1686호 10면에 게재했던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기사 일부를 정정하고 추가 보도합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연중 2회에 걸쳐 개최하는 바자회 중 봄 바자회는 선교바자회로 열린다. 지난 2일 지하 친교실과 파크에서 열렸던 바자회는 그보다 한 주 전 개최됐던 선교 후원 음악회에 이은 것으로 여름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것.

2018년 단기 선교지는 8곳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케냐: 7월 9-20일, 김도현 목사 등 5명 △카자흐스탄 7월 12-21일 김성국 목사 등 3명 △온

두라스: 7월 12-21일 차평화 전도사 등 11명 △중국: 7월 15-28일 첸위치 황해우 전도사 등 9명 △아리조나인디언보호구역: 7월 20-27일 진기웅 전도사 등 19명 △캄보디아: 7월 23일-8월 4일 전성호 전도사 등 16명 △필라델피아: 7월 28일-8월 4일 오인수 목사 등 20명 △할렐루야: 8월 25일 김재형 목사, 계화자 전도사, 마리아선교회, 마르다선교회.

한편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중기선교(일본/김유미)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엘살바도르 실버가 진행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교회 5대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김학진 목사부부가 서약하고 있다.

## “사랑 많은 목사 되도록 기도해달라”

### 뉴욕장로교회 5대 담임 김학진 목사 취임예배

뉴욕장로교회가 5대 담임으로 김학진 목사를 맞았다. 지난 17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열린 취임감사 예배에서 김학진 목사는 “부족한 중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자리로 허락해주심을 감사하며 한편으로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지난 시간동안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무게를 느낀다”고 말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목사인데, 왜 이 교회로 보내시는지 묻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발자취를 보게 해주셨다”며 “그동안 감당할 수 있어서 사역을 할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 준비해주시고 가라 하셔서 갔으며 그 사역의 마디마다 성장시켜 주셔서 가는 곳마다 화복의 제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불성실한 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의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며 교인들에게 세 가지 기도를 부탁했다.

김학진 목사는 “첫째,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도록 둘째, 날마다 죽는 목사가 되도록 셋째, 끝이 더 좋은 사역이 되기를” 당부하며 “교회가 하나 돼서 세계와 열방으로 달려가는 뉴욕장로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예배는 이용걸 목사 인도로 강기봉 목사가 기도하고 이용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용걸 목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답전6:11-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사도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호칭으로 이는 복음 전하는 자의 호칭으로 김학진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피하라(교만, 세상 것, 재물) 둘째, 쫓아 가라(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셋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자기와의 싸움, 마귀, 죄)”고 말했다. 이용걸 목사는 맛사다 요세 접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88%의 지지를 받은 김학진 목사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약과 공포가 있었으며 김학진 목사가 답사했다.

권면은 방직각 목사, 축사는 김학준 목사와 영상으로 이재훈 목사(운누리교회), 한홍 목사(새로운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가 했다. 백운영 목사(필라델피아교회 담임) 축도후 송성렬 장로가 광고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진 목사는 7월 중순부터 시무를 시작한다.  
(유원정 기자)

## “목회자와 여성 사역자의 위치와 역할”

### 동부개혁장신동문회 세미나, 강사 이종식 양춘길 목사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세미나가 “목회자와 여성 사역자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18일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열렸다.

오전 강의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이종식 목사(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 담임)가, 오후 강의는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담임)가 맡았다.

총동문회장 이종태 목사(심령이 가난한교회 담임) 사회로 기도후 시작된 오전 강의는 “이민교회 여성도와 여사역자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는 여성도의 사역을 강조하며 구역을 순으로 바꿔 목사직으로 순장을 세웠다며 순장대 부분이 여성으로 교회내 여성 리더십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여성사역자들이 어떻게 인정받고 일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여교역자를 주의 종으로 보는가? 등을 질문하고 (여)교역자의 권위는 어디서 생기는가에 대해 5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소명의식이다. 소명의식은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둘째,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권위가 세워진다. 교역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며 이는 기도로 받을 수 있다. 셋째, “2미터 원리”를 실천하라. 교인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처진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라. 넷째, 무슨 일든지 그 일에 전문가가 되라. 공부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라. 교회에 헌신하게 되면 담임목사와 동역하게 된다. 다섯째, 부교역자로 평생 사역하려 한다면 담임목사와 연합하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일하라.

이종식 목사는 24년간 제자훈련을 해왔으며, 사랑의교회 육훈을

목사의 교제 순서를 따라 내용은 자신이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순모임 교제는 자신이 만들었으며 현재 출판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후 강의는 “선교적 교회와 여성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양춘길 목사가 맡았다. 양 목사는 △한인교회에서 현재 여성 사역이 잘되고 있는가? △내가 담임목사가 되면 여성사역자를 위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여성사역자는 주로 교육, 유년주일학교를 맡으며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중간역할, 교인들, 헌신과 순종이 잘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교육전도사는 담임목사와 신학적 배경이 같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 목사는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교회내 여성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교회의 위기, 선교적 교회에 대해 설명했다.

양 목사는 “위기와 함께 교회 활성화 무브먼트가 시작되고 있다”며 선교적 교회의 대표적 학자이며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킨의 선교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적 교회로 에클레시아(마16:18), 보내심(마28:19-20), 성령(행1:8), 교회의 몸(행2:4)”이라고 풀었다.

양춘길 목사는 “교회의 DNA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를 돌아가야 하는데 ①다양한 문화권인 미국, ②특정지역에 ③예수그리스도의 심자가 복음을 갖고 ④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교적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적 삶(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 샬럿 총신동문회 초대 회장에 나성균 목사

### 15명 모여... “참된 제자의길 가자”

샬럿 지역에 총신 동문회가 결성됐다. 준비위원장 나성균 목사는 “오래전부터 필요를 느껴 오던 바였으나 요즘 고든 콘웰에 특히 많은 후배들이 등록함으로 동문회 조직을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15명이 모여 조직했고 회장에 나성균 목사(대학 4회 신대원 70회) 총무에 정세광 목사(신대원 107회) 서기, 회계에 조주형 목사(107회)가 선출됐다.

회장으로 선출된 나성균 목사는 무엇보다 참된 제자의 길 곧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참석에 열심을 보이며 후배들을 격려하기에 최선을 다한 림택권 목사(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전임 총장)는 56회 동문으로서 먼저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양육하는 도구로 많이 일을 것을 오랜 자신의 경건생활과 교수 생활의 경험을 통해 신실하게 부탁하고 또한 목회의 기본인 대인관계에서 절대 승리해야함을 힘주어 격려했다.  
(기사제공: 샬럿지역 총신동문회)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미나 오전강의를 마치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샬럿 지역 총신 동문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체(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선교로 통하는 대회되길...”

## 제1회 선교박람회 및 KWMO 발족회

제 1회 선교박람회 및 한인세계 선교기회(Korean World Mission Opportunity, 이하 KWMO) 발족식이 18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조현영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 큰빛감리교회 담임) 사회로 열린 선교박람회 오픈 예배에서 한기홍 목사는 ‘선교는 왜 해야 하나’(마 28:18-20)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선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 목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사랑이 없이



제1회 선교박람회 및 한인세계선교기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명령에 순종해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선교사는 “제 1회 선교박람회는 ‘선교박람회가 선교로 통하는 대회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대회는 은퇴자들이 선교사로 동원되는 즉 ‘황금기 선교사 동원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선교박

람회와 KWMO 발족식을 갖게 됐다”며 “근래 한국교회의 선교사 지망자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이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교동원 운동을 북미주 한인교회들 사이에서 벌여 세계선교 일선에 전문인들과 황금기 선교사들을 파송해 한국 선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선교사는 “지금까지 선교 대회는 주로 강의중심 세미나로 열렸던 선교대회였다”며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선교사와 교인들이 직접 만나 조성된 선교 공감력을 선교동원력으로 연결시키는 대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신홍식 선교사(태국)와 이은모 선교사(한인선교사회 초대회장, 조지아센트럴대학교 교수, 김넷정책실장)가 영상으로 격려사를 했으며, 김영구 목사(전 남가주목사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대회장인 한기홍 목사가 발족위원들과 함께 서약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에 순종 생명의전화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6일 오후 5시30분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목사)에서 열렸다.

박다윗 목사는 “85년 미국에 왔지만 불법체류자가 돼 누저지, 달라스, 시애틀로 옮겨다녔다”며 “목회경험이 있고 사역의 길이 열리는데 문체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역을 얼마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목회사역에 대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 자신도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위로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서울 생명의전화에서 상담을 했던 것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의 고통을 겪게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됐다. 뜻있는 목사들과 함께 LA에서 생명의전화를 시작했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사역을 시키신다는 것이다. 앞으로 회관이 생기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다윗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

예배는 김승창 목사(제3기 상담봉사원)가 대표 기도했으며 김태현 권사(제22기 상담봉사원 회장)가 성경봉독, LA목사중재단(지휘 서문옥 목사)이 특별찬양했다.

이어 박현성 목사(나성열린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며 박다윗 목사가 제임스님 사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김완중 총영사 축사를 조현재 영사가 대독했으며 봉사자 감사장 및 메달 수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장규대 이스라엘 선교사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생명의전화 근속감사패 및 수료한 상담봉사원 명단이다.

△20년 근속 상담봉사원: 권갑순(1기) △10년 근속 상담봉사원: 박성주(5기), 박성미(7기), 이용덕, 이정숙(이상 8기), 김문좌, 양준만(이상 12기) △700시간 상담봉사원: 스티브 임(16기), △500시간 상담봉사원: 박성주(5기) △300시간 상담봉사원: 김상홍(17기) △1년간 인턴십 수료 상담봉사원: 김제란, 잔김, 캐티김, 연복이, 한영순(이상 21기).

(박준호 기자)



생수의강선교교회 김인중 목사 초청 부흥집회에서 김인중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열리는 교회” 주제로 생수의강선교교회, 김인중 목사초청 부흥집회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안동주 목사)는 김인중 목사 초청 부흥집회를 ‘열리는 교회(골4:2-3)’ 주제로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했다.

“길을 찾으셨나요?”(요14: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인중 목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불우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이어나 갔다.

그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지만 술과 노름에 빠진 아버지로 인해 겨우 겨우 진학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김 목사는 “먹을 것 하나 변변치 못해 살길이 막막했다. 친구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 25살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됐으며 가족들을 위해 용서의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

실 것이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하고 기도해 하 나님의 아들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부흥집회에서 김인중 목사는 15일 저녁 ‘열리는 교회’(골 4:2-3), 16일 새벽 ‘기도의 능력’(막11:20-25), 저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고전2:4-5), 17일 1부 ‘복음의 능력’(롬 1:16-17), 3부 ‘자녀가 잘되는 가문’(대상4:9-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선포를 했다.

(박준호 기자)

## 은혜한인교회 유스오케스트라 미니 클래식콘서트

은혜한인교회 GMI 유스 오케스트라는 13일 플러튼에 위치한 St. Jude Hospital 1층 분관에서 미니 클래식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연주한 곡은 비발디 사계 중 ‘봄’, 여인의 향기 OST, 겨울왕국 OST, 디즈니 클래식 등으로 귀에 익숙한 곡으로 구성했다. 이 콘서트는 매일 계속되는 치료에 지친 환자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를 위한 연주였으며 연주 후 함께한 단원들도 행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GMI 유스오케스트라는 오렌지 카운티 오브 오렌지카운티 심포니 부지휘자이며 플러튼 칼리지에서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개혁장로회대학(원) 학생모집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가 2018년도 여름 및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모집과정은 학사과정, 기독교교육학석사과정, 목회학석사과정, 편입생과정, 편목과정이며 원서마감일은 8월 18일까지.

▲문의: (310)749-0566, (626)675-8010

###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가 아주사피서픽대학교(총장 존 웰레스 박사)에서 오는 7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요10:9)’ 주제로 개최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컨퍼런스 강사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학교).

▲문의: (310)702-2688

### 나성한인교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남가주청년연합집회를 24일(주) 오후 5시에 ‘회복 그 이후’라는 주제로 갖는다.

▲문의: (323)221-9531

### 레위 남성성가단 정기 연주회

레위 남성성가단 정기연주회가 24일(주) 오후 6시30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200-7338

### 선한목자교회 세미나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타인을 세우는 대화법 세미나를 23(토) 저녁 7시30분에 실시한다. 강사는 한성열 박사(고려대 심리학 교수, 은퇴교수).

▲문의: (909)591-6500

### 세계의료선교연합 선교대회

세계의료선교연합(GMMA)이 주최하는 선교대회가 22일(금)과 23일(토),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444-3032

### OKC 뇌졸중 및 협심증의 전조증상과 대처방법 세미나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는 뇌졸중 및 협심증의 전조증상과 대처방법 세미나를 24일(주) 오후 12시 본 교회 친교실에서 갖는다. 강사는 홍정애 권사(내과 전문의).

▲문의: (714)871-8320

### 한미동맹 기념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한미동맹 기념집회를 24일(주) 오후 6시에 갖는다.

▲문의: (808)536-7244

들은 gmiorchestra@gmail.com 또는 (714)318-208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GMI 유스오케스트라)



은혜한인교회 GMI 유스 오케스트라

## 새생명 성경캠프 열린다. 어린이전도협회 7월 16일-19일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가 주최하는 New Life Bible Camp가 “FM2G”(From Me To



God) 주제로 7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3박4일간 Rancho Ybarra Christian Camp에서 실시된다.

본 캠프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경캠프다. 이 캠프는 어린이전도협회의 오랜 경험과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가슴마다 예수님을 심어주는 새생명 캠프 참가자격은 3학년부터 7학년(올라가는) 어린이들로 150명 선착순 마감. 7월 2일까지 등록하면 등

등록비는 195달러. 이후 등록은 210달러다.

대표 여병현 목사는 “이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성경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며 헌신된 봉사자들의 손길도 필요하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어린이전도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선교기관으로 16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다.

자세한 것은 (213)382-1544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어린이전도협회)

##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OC임시사무실 오픈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 오렌지카운티 임시사무실 오픈식이 17일 오후 4시에 열렸다.

OC 임시사무실 오픈식에서는 성조기 게양식을 가졌으며 영감 연방원 후보, 이재경 목사부부, 금병달 목사, 금정진 사모, 김성우 목사부부, 김동욱 목사부부, 지니박

집사, 미셀 최 등 본 재단 회원들이 함께 했다.

한편 본 재단은 제 68회 한국전쟁기념식을 6월 23일(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SS 레인빅토리호에서 개최한다.

▲문의: (754)779-5887

(기사제공: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새 대표회장 김영수 나성 총회감독 추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제 9회 정기총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는 14일 충남 천안 나사렛대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 김영수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 총회감독을 추대했다.

한성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

성), 나성 3대 성결교단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합회 단체다. 김 총회감독은 취임사에서 “한성연은 사본오열된 한국교회에 연합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연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데 한국교회

를 깨우고 살리는 일에 한성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윤성원 기성 총회장과 윤기순 예성 총회장이 각각 공동회장으로 선임됐다. 공동부회장에는 3개 교단 목사·장로 부총회장 6명이 선출됐다. 직전 대표회장인 신상범 전 기성 총회장은 공로패를 받았다.

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행되며 3차는 8월 14일 판문점에서 이뤄진다.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목사는 “통일행진은 북쪽적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에서 북으로 통일의 염원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동북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음을 옮기고 판문점에서 마무리 짓는 일정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담은 ‘통일행진’ 펼친다 사랑광주리, 6월부터 8월까지

국제구호개발 NGO인 (새사랑광주리(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6월부터 8월까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행진’ 행사를 펼친다. 한라부터 백두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유적지와 기관을 탐방

하고 특강을 통해 통일비전을 공유한다.

3차에 걸쳐 이뤄지는 행사는 차수별로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차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한라산 일대, 2차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백두산 일대에서 러시

## ‘성령으로 포항을!’ 주제

### 세계성령증앙협 포항성령성회, 강사 소강석 목사

사단법인 세계성령증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와 성령세계 2020(대회장 소강석 목사)은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포항 안디옥교회(담임목사 배진기)에서 성령성회를 개최했다.

‘성령으로 포항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새에덴교회 담임목사인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권경환 목사, 신성남 목사, 정인찬 목사

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였다.

6월 11일 성회 둘째 날 강사였던 소강석 목사는 “인생의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본문을 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임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는 천국복음을 소유했음”을 각인시켰다.

이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춘 보화를 발

견한 사람 같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한다”며, 이어 “한국교회가 회복돼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의 능력을 되찾아 성령운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 전체로 불기를 바란다”며 말씀을 마쳤다.

(기사제공: 세성협)

## 호국보훈의 달 교계 행사 줄 이어

### 6·25 상기 구국성회·사진전·예술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계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6·25상기 성회와 사진전, 예술제, 비전선포 등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교회가 남북 평화통일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인연합회는 21~23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에서 ‘6·25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를 연다. 기독교장병 및 가족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성회의 주제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이다. 이영훈 박성규 김성일 김형준 광선회 목사,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가 맡

씀을 전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27~29일 서울 은평구 불광로 팀수양관에서 ‘다미차(다음·미래·차세대) 기독교년캠프’를 진행한다. 군입대 예정자 및 청년사역에 뜻이 있는 이들에게 군선교의 사명을 강조한다.

제주도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1층 기획전실에서 ‘리멤버 강뉴(Remember Kagnev) 에티오피아 특별전’을 연다. 에티오피아에서 문화영상 선교사로 7년여간 활동 중인 박경배 작가의 사진작품 70여점을 처음 공개

## “교계 해외입양아 인권 문제 관심 기울여야”

### 예장통합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미국으로 입양돼 학대받았습니다. 두통약 2통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어요.”

1980년대 미국의 한 백인 부부에 게 입양된 40대 여성 A씨는 목회자 40여명 앞에서 입양 당사자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한국에서 편지가 교화다워지고 거룩의 능력을 되찾아 성령운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 전체로 불기를 바란다”며 말씀을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외입양 제도와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를 짚

어려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50년대 이후 전 세계 입양아 50만명 가운데 20만명은 한국 아이들”이라며 “국제 입양아 대부분이 한국인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친부모가 아동을 우선 양육하도록 하는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1993)이 한국에선 아직 비준되지 못했다”며 “해외 입양에 아동 권리가 우선 고려돼야 하며 국제법상 인정되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입양인 지원기관인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는 교계가 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한다. 강뉴(Kagnev)는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부대 이름이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회가 자유수호를 위해 피 흘린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그 나라를 도우며 후세에 기록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라글로발찬양물총회신학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테케이아트홀에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대한민국찬양물총예수제’를 열었다. 한국교회국회평신도5만4천여명, 평통연대 등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 기원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도 지난 1일 육군6사단 청성부대를 찾아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쟁 이후 한국의 해외 입양에는 서구우월주의와 미혼모를 못 받아들이는 가부장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친어머니와 조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이별과 상실의 입양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소속 목사들은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함께 읽고 해외 입양과 입양 당사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고 해외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입양아동과 친생부모, 입양 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 받은 존재인 인간의 존엄함을 누리 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회 ‘신사참배 결의 80년’

### 올해 대대적 회개운동 벌인다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결의 80년을 맞은 올해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전개된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윤보환 대표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강남호텔에서 ‘신사참배 결의 80년 회개운동을 위한 각 교단 및 주요 단체장 연속회의’를 열고 “1938년 9월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무효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기부는 오는 9~10월 각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무효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10월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인 신사참배 회개운동 연합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교회에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기도회와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각 부흥단체 강사들이 집회할 때마다 신사참배 회

개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 성장했다”며 “거룩한 성령, 부흥집회를 통해 우상숭배인 신사참배 효를 선언하고 민족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회개운동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2년 6월 18일 한국교회 지도자 한경직(1902~2000) 목사의 고백은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을 축하받는 자리에서 한 목사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행했으나 여태껏 참회하지 않았다”면서 “반세기 전에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참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老)목회자의 죄책고백은 당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가슴 속에 각인됐다. 2006년 1월에는 기

독교대한복음교회가 “초대 감독이었던 최태용 목사가 참주개명을 하고 친일 잡지에 친일 논설을 기고했다”며 교단 중 처음으로 친일행적을 반성했다.

2007년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신사참배에 대해 사과했다. 2008년 예장합동과 통합, 합신, 기장 4개 교단은 장로교단 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연합예배를 갖고 신사참배 참회기도를 드렸다.

2015년엔 예장합동 소래노회가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다. 38년 장로교 총회가 열리기 두 달 전에 장로교 8개 노회가 신사참배 결의에 앞장선 것에 대해 회개한 것이다.

한기부는 70년 고 박용목 신원균 목사, 조용기 목사 등이 창립한 부흥사 연합기구로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각종 부흥집회와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사랑의 쌀과 연탄 나눔, 노숙인 급식사업 등도 펼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속 선교의 미래를 열어라”

### KWMA, 부산 수영로교회서 제7차 선교전략회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1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 분당에 모인 1500여명의 선교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며 선교 사명을 재확인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21일까지 진행하는 7차 선교전략회의(NCOWE) 개최예배 현장에서다.

KWMA는 나를 동안 ‘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선교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전략회의의 부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급변하는 세상과 호흡하며 선교사와 교회, 교회와 선교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기초연설에서 서동혁 단국대 융합기술대학 디스플레이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하나님은 4차 산업혁명을 선교를 위한 길로 사용하고 계신다”면서 “인공 지능의 발달로 실시간 자동번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모든 변화를 선교에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만 변화를 제대로 읽고 ‘12제자와 같은 선교자원 확보’와 ‘사도바울과 같은 선교역량의 확장’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선교인력과 정보, 자원과 열정이 집중되는 ‘선교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하는 선교를 정착하는 게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적 대안”이라고 했다.

조용중 KWMA 사무총장은 ‘함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선교’에 방점을 찍었다. 조 사무총장은 “선교는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돼야 하며 교인들의 일상이 선교적 삶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주변의 ‘가나안 교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과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은 미전도 종족 모두가 선교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략 수립을 위해 19일엔 선교영역별 토의를 진행했다. 현장 선교사들이 발표자로 나서서 토의에서는 ‘전방개혁 선교’ ‘비즈니스선교’ ‘선교 재정’ ‘선교사 순환배치’ 등 선교계의 주요 이슈들이 다뤄진다. 20일엔 권역별 토의가 이어진다. 전 세계를 19개 권역으로 나눠 각 선교지의 현실과 과제를 연구한다. 토의에서는 북한과 중동 등 ‘제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략회의에선 수시로 문화공연이 이어져 선교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 호미로 막을 저작권료, 가래로 막으실래요?

### 선교 콘텐츠 저작권료 한국교회 ‘시한폭탄’ 불씨 끄려면…

저작권 폭탄의 시계 초침이 짹짹 돌아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꺼내고 있는 듯 한 형국이다. 교회는 CCM(대중복음성가)이나 이미지 영상 폰트 소프트웨어 등을 자주 쓰면서도 저작권 보호에는 소극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언제까 전문학적인 금액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욕죄는 저작권, 어찌 하오리까

가장 우려되는 저작권 분야는 CCM이다. 사진이나 영상 폰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지만 CCM의 경우 찬양에 주로 사용되다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저작권자들은 그러나 엄연히 불법인 만큼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유명 음악저작권 단체인 AS는 2년 전 한국교회의 저작권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내 한 저작권 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한국교회가 복음성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일선 교회에 저작권 준수를 잘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

었다. 원론적이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선전포고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은 이미 3년 전에 음악 저작권을 둘러싸고 흥역을 치렀다. 미국 내 한국 음악인들의 음악 저작권을 확보했다는 B사는 2015년 5월 한인교회들을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성도 1만명 이하의 교회는 1년에 3만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B사의 요구에 일부 한인교회에선 CCM을 부르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파문이 커졌다. 다행히 다수의 한인교회들이 미국의 최대 CCM 저작권사인 CCLI(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에 가입한 데다 한국의 저작권 단체에서 B사의 저작권 요구 근거를 문제 삼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한국교회는 이후에도 꾸준히 저작권 논란을 겪었다. 같은 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대형 교회들을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영상이나 소프트웨어 폰트 사진 등과 관련된 국내 저작권 단체들이 교회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 외

국의 저작권 단체가 한국교회를 예외주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부흥을 거듭한 한국교회를 상대로 외국의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저작권료는 적정 액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칫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저작권 단체 관계자는 “아직 저작권 단체들이 한국교회의 위세에 놀라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시기의 문제일 뿐 누군가 먼저 나서면 불똥 터지듯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저작권, 걸림돌 아닌 디딤돌로 여겨야

저작권 시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일선 교회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저작권을 교회 운영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겨야 한다. 저작권이 보호돼야 저작권자들이 창작 작업에 몰두할 수 있고,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로 교회들을 구해줄 수 있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건 선순환이 이뤄진다.

일선 교회의 저작권 대응은 그러나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CCLI에 가입해 교회음악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국내 교회는 전 체 등록 교회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저작권료를 내

기 어려운 성도 3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를 제외해 따져 봐도 가입률은 2%를 겨우 넘긴다. 미국의 경우 자립 교회 중 80% 정도가 CCLI에 가입해 음악 저작권을 확보한 점과 크게 대비된다.

교회음악과 영상, 이미지 등의 저작권의 라이선스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도가 100명인 교회는 연회비 24만원을 내면 대부분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한 교회는 전체 자립 교회의 1% 수준에 불과하다. KCCA는 성도 3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에는 연회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대신 대형교회가 추가로 내는 회비로 충당한다.

교회는 정식 출판물이나 저작물을 구매해야 한다. 정식 제품이라도 저작권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허가를 구입해 교회 안의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면 불법이다.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라도 개인 목적이거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복음성가를 부를 때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진 안 된다. 직접 손으로 악보를 그려 배포해도 저작권 침해다. 성가집은 연주하려는 인원수에 맞게 사야 한다.



# 교도소 선교칼럼 (44)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줄리아의 아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줄리아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항우울제 복용한 후 한밤중에 박을 돌아다니며 심지어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겁에 질려 약물복용을 멈추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걱정이 된다며 나의 집에 며칠동안 같이 있으면서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 전화를 했다.

그녀가 도착하기 전날 꿈에 하나님은 그녀의 우울증을 공포를 주는 악령의 공격이며 여호수아 1:5-9절을 읽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줄리아가 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읽어 주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 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크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5-9).

그녀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듣고 나서 왜 그녀가 이성결함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줄리아는 정신에 혼란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녀가 글로 쓴 아픔이다.

"내 영혼, 마음, 그리고 몸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고통의 음성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왔다. 나는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감정이 불안해졌고, 내 몸은 매우 피곤하고 약해졌다. 내 가슴은 아픔으로 가득 차고, 계속 울어서 내 눈은 충혈되었다. 공포감이 나를 공황 상태로 몰아갔으며 공허함, 메마름, 그리고 절망감과 분노가 강하게 느껴져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애원했다."

줄리아는 파괴적 음성과 영적 억압으로 인해 영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나의 집에 3일간 머무는 동안, 회고와 성경 묵상, 기도, 회개, 용서함에 초점을 두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오는 파괴적 음성을 저항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씩 아픔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콜로라도 주립대 학생이던 내 아들은 줄리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지쳐 있었고 침울한 지를 보았다. 그녀가 나의 집에 머문 두 번째 날, 아들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 친구분에게 항우울제를 복용하라고 하세요."

그녀가 우울증이 시달린다는 것을 눈으로만 보고도 알 수 있기에 그가 한 말이다.

"좋은 제안이야. 하지만 줄리아의 문제는 화학적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야.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문제만 더 생겼어. 문제는 영적인 것이야. 영적 문제는 약물치료를 풀 수 없어. 하나님만이 그녀를 치유하실 수 있어."

두 번째 날, 하나님은 줄리아에게 고백 편지를 쓰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다고 하며 기뻐했다. 줄리아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과 자신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잘못된 음성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다. 대화를 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자기가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제가 교도소에 갈 것이라 생각하세요?" 그녀는 겁이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경찰에게 잡혀 갈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나는 물었다. "아니요."

"당신이 들은 것을 믿지 마세요. 사탄이 마음에 공포의 씨앗을 심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거예요. 그런 잘못된 음성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파괴적이고 잘못된 음성을 생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마음에 고통을 받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혼란과 뒤러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지를 모르고 받아들이니까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을 저지하기 시작한 후 혼란스럽던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음에 쌓여 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의 편지로 쓰면서 그녀는 우울증을 겪을 때 가지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평안, 기쁨,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성경말씀과 기

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셋째날, 줄리아가 떠나기 전 "우울증에 대한 영적 처방"(필자의 저서 "교도소에서 핀 선교의 꽃"(3편) 수록)을 그녀에게 적어 주었다. 내가 교도소와 병원 목사로 근무하는 중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이 영적 처방전을 적용함으로써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나의 아들은 우울하고 슬퍼 보였던 줄리아가 환한 얼굴로 나와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줄리아가 웃을 땀 얼굴로 떠난 후, 내 아들은 "그것 참 빠른 회복이네요"라고 믿을 수 없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적 음성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아직도 여러 면에서 그녀는 치유가 필요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나아질 거야."

줄리아는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그 후 차차 우울증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우울증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고 마귀를 물리칠 때 치유될 수 있다. 줄리아가 그 한 예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 뉴욕행복한교회,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 황영진 선교사 사역지 협력...6월말 예배당 건축

뉴욕행복한교회(담임 이성현 목사)가 지난 6월 4일부터 5일간 뉴욕출신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산간마을 뽀뜨레리요스에서 단기선교를 진행했다.

뉴욕행복한교회는 단기선교를 통해 △뽀뜨레리요스 마을 거리 및 가정방문 전도 △엘살바도르선교센터 애프터스쿨 아동 활동행사 태권도 시범과 선물전달 △뽀뜨레리요스 현지인 초청 전도예배 △산벨리페 공립학교 방문 태권도 시범 및 선물전달 △산벨리페 개척교회 마을 거리 전도와 가정방문 전도 △산벨리페교회 현지인 초청 전도 집회 △뽀뜨레리요스와 간동고 공

립학교 방문과 선물전달 등의 사역을 펼쳤다.

단기선교에서 태권도 시범에도 참가한 영일두 전도사는 선교간증 등을 통해 "60여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40여 년간 태권도를 가르치는 무인의 길을 걷다가, 늦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위해 살아가려는 서원을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이번 기회에 또 하나의 중보기도를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고백했다.

또 "행복한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선교 대원들과 함께 황영진 선교사님의 인도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힘든 가정을 한 가정씩

방문하며 선물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려웠던 한국의 50년대 60년대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영일두 전도사는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황 선교사님을 보내 주셨음에 감사하고, 나도 그곳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뻐했다"며 "황 선교사님 부부는 산간마을에서 영어 컴퓨터 태권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구제와 전도,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기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황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중보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남에 감사하며, 나 역시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과 태권도를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 어디든 나갈 수 있도록 간구와 기도를 올린다"고 고백했다.

한편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는 엘살바도르에서 3년차 사역 중 작년 이맘때 선교센터 인근 가난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여 한 믿음의 가정의 헌금으로 지난 3월부터 세 번째 짓는 예배당 건축공사를 시작해 6월 말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뉴욕행복한교회)

## 선교 편지

### 필리핀 민다나오섬

6월 15일 하리라야(Hali Raya)

한달 간의 금식 후, 필리핀 무슬림들은 라마단의 마지막 날인 하리라야 때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해를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해가 지면 음식을 할 정도로 음식을 밤새 먹는다. 라마단 한달 동안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면 평소 때보다 야채나 고기 값이 비싸다. 무슬림 중에도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목상 무슬림들도 상당하다.

필리핀의 서남단 잠보앙가 도 시에는 따우수크 무슬림(Tausug Muslim)들이 불리발드 해변가에서 예배를 드렸다.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무슬림들 특별히 모두 허리를 숙였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



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 머리를 바닥에 대고 기도한다. 이맘이 한 시간 정도 설교하는 동안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한다. 이맘이 따우수크 무슬림 언어로 설교를 할 때 언어를 알아듣는 편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메카는 수많은 다른 이름이 있지만 이슬람 신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좇아 순례해야 하고, 꼭 가고 싶어 하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수많은 따우수크 무슬림 중족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맘의 설교 소리가 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상황에 맞게 사진을 찍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리라야 무슬림 예배 때는 엄숙한 분위기가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맘의 설교 시간에 핸드폰만 들려다보는 무슬림들이 많아졌고 기회가 될 때마다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 늘었다. 문화와 종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오정윤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강화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강화예배: 오후 2: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월-토)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민경협</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0:00 영양강화예배: 오전 5:30 토요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강화예배: 오후 1:20 젊은이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중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저녁 7:30</p> <p>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k. L.A., CA 90033</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8-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전 11:00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b>베델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30 금요찬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LA 복음연합감리교회</b></p> <p>담임목사: 이영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E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요셉선교회</b></p>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b>얼버니침례교회</b></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EM)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b>일셔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학교: 오후 2:00(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오전 6:00(토) 토요영양예배: 오후 8: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www.g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n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p>	<p><b>중은마을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www.sccasamsunchurch.org / e-mail: pastor@ccasamsun.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nerstone.org / e-mail: pastor@conerstone.com Tel: (310)330-4040(CEH), Fax: (310)3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p><b>토렌스노교회</b></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월-토) 주일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6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인/터/뷰 (세장로교회 담임) NCKPC 총회장 원영호 목사

## “교단 내적개혁 역할 감당하는 ‘남은 자’ 사명 다 하겠다”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제 47회 정기총회 및 전국 대회가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샌디에고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이때를 위하여 아난가’(에 4:14) 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원영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원영호 총회장은 지난 4일 본지를 방문해 총회장으로서의 비전과 앞으로 NCKPC의 역할을 소개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본지를 방문한 총회장 원영호 목사

원영호 총회장은 교단(PCUSA)에 소속한 400여 한인 교회들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한인 교회들이 맡은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교단이나 지교회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중국에 가서 ‘계속 남느냐’ 아니면 ‘뒤 돌아보지 않고 떠나느냐’ 사이에서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단이 지난 수년 간 신학적 이슈와 윤리적 결단으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어오던 와중에 한인교회들도 상당한 아픔을 겪어왔지요. 그러나 대다수 교회와 지도자들은 교단의 내적 개혁을 지향하는 역할을 감당할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남은 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원 총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신교적 요점을 ‘남은 자’의 신학적 이해로 해석하고 있다. 이민 신학에서 소수자 한인 크리스천을 ‘변두리인’으로 설정하듯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한인 교회는 ‘남은

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남은 자’는 ‘변두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일 수 있으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에이젠트란 확신을 피력한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삶의 뒤안길에 버려진 무용자가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창의적 사역을 이룰 가능성을 보유한 존재란 의식을 갖

는다. 구약 아합왕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천명’이란 자각을 하는 자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총회장은 “우리 한인 교회들은 복음의 순수한 전통(정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복음적인 신앙의 보수하면 한인 교회와 교인을 지목하거든요. 이런 인식이 구태의연한 보수 집단이란 부정적 의미보다는 현 시점에서 개혁의 의지를 발휘할 참신한 소수자란 의미가 더 깊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한인 교회가 교단 내에서 정치적 역할

을 발휘하고 교단 내 복음적 그룹들과 연대해 교회 쇄신에 함께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인 교회의 특수한 신앙 훈련과 적응력이 교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 행위할 참신한 소수자란 의미가 더 깊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한인 교회가 교단 내에서 정치적 역할

을 발휘하고 교단 내 복음적 그룹들과 연대해 교회 쇄신에 함께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인 교회의 특수한 신앙 훈련과 적응력이 교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 행위할 참신한 소수자란 의미가 더 깊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한인 교회가 교단 내에서 정치적 역할

전과 사역의 바탕을 ‘회복’에 두고 싶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류 교단의 수적 감소에 따라 교회의 제반 프로그램과 선교 사역에 축소 내지 위축 현상을 직시하면서, ‘회복’의 당위성을 모색하자는 충심어린 호소를 하고 있다.

교회와 교단에 대한 불공정한 비난과 비판을 외면하기보다는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대 위임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문화적 다양성을 접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한인 교회는 복음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타인종 교회와 에큐메니칼 연대를 원활히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고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심 과제는 차세대 목회 사역의 진작과 지도자 양성이

라 생각합니다. 이민 반세기를 훨씬 지난 이민 교회는 이제 1세 중심의 교회 운영과 체제에서 차세대 목회 패턴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이가 긴급 과제입니다.”

원 총회장은 폭넓은 목회 사역의 구상을 하면서 그의 총회장 임기 동안 NCKPC를 통해 목회 비전의 지평을 넓혀서 시행하길 원

한다. 그는 그런 꿈과 비전이 단번에 다 이루어질 수 없어도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가교를 설치하는 역할을 자신이 겸허히 감당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피력한다.

원영호 목사가 미국으로 온 목적은 자신이 전공한 토목 공학으로 교수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박사 논문을 앞두고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원 목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부친 원익환 장로가 먼저 일반 학문을 하고 확실한 부르심이 있을 때 신학을 하라는 조언이 있어 토목을 전공하게 됐다. 그러나 논문을 쓰기에 앞서 확실한 부르심을 느꼈고 그 길로 풀러신학 교로 방향을 바꾸었다. 신학을 하며 교수가 되겠다는 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목회 쪽으로 길을 여셨고 베델교회(당시 손인식 담임 목사)에서 행정목사로 6년을 섬긴 뒤 현재 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다.

“담임목회를 시작하고 어려움도 있었지요.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당시 한미노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중재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라고 지나간 아픔의 시간들도 진솔하게 들려주는 원 목사는 “앞으로 남은 자의 소리를 교단에 전달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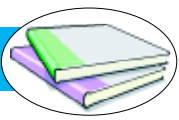
한편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NCKPC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원영호 목사 △차기 총회장 최병호 목사 △평신도 부총회장 김영철 장로 △서기 박근범 목사 △사회계 김일 장로 △협동총무 김성택 목사 △EM총무 주성업 목사.

(이성자 기자)

## 비전과 사역 바탕 ‘회복’에 두고 복음 전파 명령 이행 차세대 목회 패턴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이가 긴급 과제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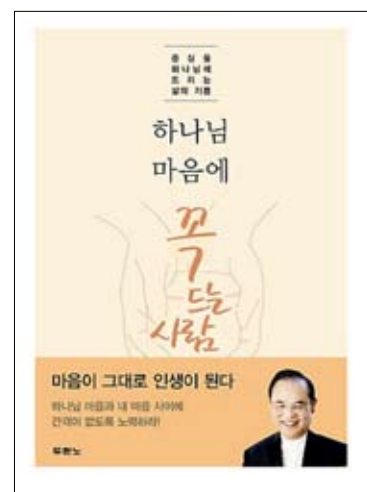
##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저자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기홍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두란노)을 펴냈다.

그는 프롤로그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성공한 삶의 모델인 다윗을 보았고 그의 삶이 궁금했다”며 “이 책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려고 금식하며



성경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

람으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며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고 천국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고 믿는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 다윗을 삶의 모델로 말씀 실천하며 받은 은혜 답아

가슴에 파고 오는 생각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서는 1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다’, 2부 ‘다윗에게서 배우다’로 나뉘 1부에는 ‘인생 성

공의 비결’, ‘성공하는 신앙생활’, ‘배움과 받음의 법칙’, ‘다윗이 받은 복’,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을 수록했고 2부에는 다윗의 삶을 통한 교훈으

로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라’, ‘생명을 걸고 충성하라’, ‘말씀이 인생을 책임진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등 총 20개의 글이 수록돼 있다.

한기홍 목사는 ‘한국 정계를 주무르는 정치가가 되겠다’며 야심차

게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전도지 한 장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뿐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 은혜한인교회 2대 목사로 섬기고 있다.

또한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 이사장,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회(KWMC) 공동의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16대 대표회장,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회장으로 섬기며 미국을 깨우는 연합기독교운동의 주역으로 사역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오늘을 만족하라’(두란노)가 있다.

(이성자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6)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기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8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구조와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기업 활동의 구조와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무지로 인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와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이해는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연관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너무 과소평가 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나 과대평가하는 금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에서 그들의 능력 수준

을 이룬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라는 관점에서 타인을 자신보다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기업 활동에 직면하는 문제는 기업 목표의 설정과 성공의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기업의 목표설정에서 그리스도 기업가는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수탁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벌어들이는 이윤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봉사과 헌신, 책임, 재능, 기회의 결과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기업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성공의 요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업의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계

가 권력을 잘 활용하여 타인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권력이 없는 자 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용은 그리스도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리더십이다.

여섯째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평과 의의 실현과 관련한 문제들로 기업의 모든 관계에서 종업원과, 소비자, 주주들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 실현하는 문제이다. 특히, 직장 내의 소수민족(minority), 여성, 신계 부자유자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우에 대한 문제로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능력에 맞는 선택과 성과 통해 청지기로서 노력과 성실로 완수해야 직원 가치 인정, 특히 비기독교인 직원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의 실현

에 맞는 직업 선택과 성과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은사를 최선의 노력과 최대한의 성실함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기업을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운영한다면, 좋은 기업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다.

둘째로 기업의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인간자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이다. 이것은 기업 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직적 차원들과 직원들의 인간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날의 많은 경제 이론들이 인간 자체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은 경제 발전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공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인간자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있어서 단순한 황금 만능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인간 자체에 대한 가치 인정과 평가는 필요한 행동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의 자비로

속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수 조건이다.

넷째로, 기독교경영기업의 기독교적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기독교 종업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문제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집단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또 다른 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아닌 타인의 복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적정 이윤의 추구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기독교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나, 극복해야 할 일이다.

다섯째로, 권력을 다루는 문제이다. 권력을 다루는 문제가 그리스도인 경영자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개인, 회사,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개인의 역할들을 우선화시키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청지기로서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하고, 특히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은 몹시도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일곱째로, 관리 구조에서의 충분한 책임감을 성취하는 문제이다. 기업 활동에서는 재량권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지만 이것을 옹기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권력이양(Empowering)과 관련한 문제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여덟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새롭고, 신기하고, 시도되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수동적이 되며, 무기력해지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 기업가는 변화와, 나쁜 소식,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두려움 없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소망이 넘치며,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로서의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한다는 것은 기술과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함께 중요하다.

dr.jameskoo@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왕상1:41-45)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소식을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전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막 잔치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나팔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보다 자

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식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반역자들은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세워지고 아도니아는 떠나게 되듯이 오늘 복음은 담대히 전파되고 예수 이름 전할 때 약한 무리들은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라(왕상1:46-53)

솔로몬이 왕이 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도니아는 두려움 속에 일어나 제단 뿔을 잡습니다. 본문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야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니까 뿔 한자리 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각기 제자리로 도망갑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솔로

몬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네가 이제부터 돌아가서 선한 사람이 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 죽리라." 아도니아야가 정말 죄를 뉘우치고 선하게 살았으면 그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또 역모를 꾀함으로써 솔로몬이 가차 없이 죽여 버립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왕상2:1-2)

드디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에 3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이뤄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갈 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위

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써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까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 속에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통한 축복을 받는 지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행통함은 "막힘이 없이 번성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 행통하게 됐음을 남겨두는 성도가 되어 하지 않았습니까?

목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왕상2:2)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다윗왕과 같이 행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습니까?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 깊이 깨닫고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부"라는 뜻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당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

께하셔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수1:5-7). 다윗도 평생에 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를 대장부가 되게 하십니다.

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2)(왕상2:2)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야 합니다.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잠4:23).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의 모든 돌보심을 내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출발함으로써 승리함과 행통함의 축복

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가지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뜻에는 "너의 대장부다움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눈앞에 제대로 되는 것이 안보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토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찌라(왕상2:3)

또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행통"이라는 단어는 "다스릴"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옳은 것을 하라고 하시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따라가면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지키면 놀라운 행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18학년도 여름 및 가을 학기 학생 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여름 및 가을 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1. 학사 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2018학년도 가을학기: 원서 마감일: 2018년 8월 18일 • 개강수련회: 2018년 8월 27, 28일 오후 7시 • 장소: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 (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여름학기 박사 과정 Intensive 과목
(1) NT-711 바울의 신학과 목회 (Pauline Theology & Ministry, 3학점) • 담당 교수: 최갑중 박사 (백성대 신학 교수 및 총장 역임) • 일장: 2018년 7월 23일(월) - 26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2) CH-721 기독교 역사 속의 부흥 운동 (Revival Movement through the Ages, 3학점) • 담당 교수: 오덕교 박사 (합신대 역사신학 교수 및 총장 역임) • 일장: 2018년 8월 6일(월) - 9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otdjkim@sbcglobal.net

박사 과정 안내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California BPPE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목회학 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단체 지도자 • 졸업학점: 36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 당 150불
(2) 신학 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임 (입학시) • 졸업학점: 48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 당 150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4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 할렐루야 2018

# 대뉴욕복음화대성회

##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 오직 성령으로! (행 1:8)

###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 출연



#### Christian K-POP 'LAST'

- 강원구, 강인구, 이현우
- 기아대책 음악홍보대사
- 국제 KOSTA 강사
- 2011 타이워커 내한 예인상여
- 2013 송정미 콘서트 예인상여
- 2015 송정미 찬송가 앨범 참여
- 곡동방송 클리비전 재능



#### 송진희

- COM가수 RoseM 리더, 보컬
- 사운드 오브 뮤직 아리아역
- COM 음악방송 메인MC
- 곡동방송, CBS, CTS 등 출연



#### 구순연

- 국악현악 가수
- CBS, CTS, Good TV 출연
- 간증집회 8000교회 인도
- 대한민국 시민문화상 수상



#### 백기현 교수

- 공주해월김리교회장로
- 리서벨찬양원장
- 국립공주대학교형제교수
- 성곡오케레디안장
- 오케라 이순신제작자
- 화관문화원장
- 2인1의병가상



플라 중창단 (여의도순복음실업인연합회)



연제이클래식오카리나 앙상블 (CSN 방송 연주팀 / 오남주 교수 외)

장로성가단, 권사합창단, 밀알합창단, 목사합창단(NY,NJ), 사모합창단, 부부합창단, 케르그마중창단, 필그림무용단, 뉴욕취타대 외 다수

일시 : 7월 9일(월) 7:30 PM

7월 10일(화) 7:30 PM

7월 11일(수) 7:30 PM

장소 :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 Promise Church  
130-30st Ave, Flushing, NY11354 (718-321-7800)

대회장 이만호 목사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부대회장 정순원 목사(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부회장)  
김주열 장로(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이사장)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문의 김희복 목사(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총무)  
646-270-9037

김진화 목사(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서기)  
347-721-6003

#### 목회자 세미나 및 한미지도자 기도회

- ▶ 일시 : 7월 10일(화) 오전 11시
- ▶ 장소 : 대동연회장
- ▶ 강사 : 이영훈 목사

#### 어린이 복음화대회

- ▶ 일시 : 7월 9일(월) ~ 11일(수)
- ▶ 장소 :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시무)

#### 청소년 복음화대회

- ▶ 일시 : 10월 5일(금) ~ 6일(토)
- ▶ 장소 :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시무)

#### 차량운행안내



- ▶ [출발시간] 7월 9일(월), 10일(화), 11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
- ▶ [출발장소] 1. 플러싱 공용주차장 산수갑상 옆  
2. 74가 잭슨하이웨이(구)종합식품 앞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279-1414 / Fax: 718-279-5838  
www.nyckcg.org · E-mail: nyckcg@gmail.com